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64 1982년 10월 27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October 27, 1982

OCT 28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실 협 총 회

협동조합 정관통과

명칭개정안은 부결

22만달러 예산안 통과

"담배 1보루(카튼)에 약 30전을 도매상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온타리오실업인협회협동조합이 설립을 향해 거보를 내디디었다.

22일 토론토 인·온·더·파 호텔에서 열린 실협 정기총회는 전문 26조의 협동조합 정관을 통과함으로서 협동조합은 앞으로 발기인 총회를 거쳐 탄생되는 길만 남아있다.

이날 총회가 조합문제 처리전 협회 명칭 개정문제로 장시간을 소비하자 참석자 121명의 회원중 50여명이 돌아가 약 70명이 남아 조합 정관등을 통과했다.

실협은 이날 결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춘수)에 5명을 보강한다.

5시간에 걸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 83년 예산안등을 박수로 통과 시킨후 핫·이슈인 명칭 개정문제를 토론끝에 통과했으나 신중론이 세차게 일어 부결된 결과를 초래했다.

차선경 회장은 정관 1조 「본회는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라고 칭한다」를 「경제인협회」로 고치려는 이유를 설명, 1)한국의 상공회의소등 유사단체들과의 유대관계에서 오는 명칭상의 혼란, 2)750여 회원들이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 대비하며, 3)「구멍가게」로 박힌 실협 이미지를 넓혀 타업종의 회원들을 받아들이는데 더욱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찬도, 원영신, 황형오씨등이 반대 발언, 1)한 단체의 명칭을 쉽게 바꿀 수 없다, 2)명칭보다는 협동조합을 토론하자, 3)새로 생긴 상공인협회를 의식,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공협회와의 관계는 무시하자 등의 주장을 폈다.

전년도 실협총무 최복기씨가 정족수 미달을 주장하고 원영신 회원이 일반관례에 따라 회원 2/3이상 찬성원칙을 역설, 임승철회원이 협회 분열 위험성을 지적하자 차회장은 정관개정통과를 취소했고 총회는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 정관개정안을 재표결에 붙이는 방침"을 결의했다.

3분의2 찬성안이 통과된 후 재표결 결과 명칭 개정 문제는 부결됐다.

총회는 제4조 회원의 자격조항을 "사업체를 가진자나 또 그 경영자를 말한다"라고 개정, 일반 독립업체 주인뿐 아니라 베커, 맥스의 후랜차이즈 또는 매니저로 있으면서 실질적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회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이날 총회에는 「상공인협회」의 대변인 임윤식씨가 실협회원 자격으로 참가, 회칙개정안 등에서 열띤 반대토론을 벌였다.

총회는 또 22만달러 신년도예산안을 통과, 755명의 회원을 가진 대단체로서의 면목을 과시했다.

통과된 신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협동조합 정관골자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서 ★

○협동조합 조직및 운영.
○공동구매활동 사업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대외활동.
○효과적 실협뉴스의 활용.
○컴퓨터도입등 사무행정의 효율화.
○그로서리외 타업종 회원 확보.

★협동조합 정관골자★

○현 위원회에 5명을 보강, 발족위원회로 전환하고 발기총회 일시, 정관상의 세부적 사항등을 결정한다.
○명칭은 「실협 협동조합」
○조합원 1인당 1주 소유, 주당가격은 $2,000로 한다.
○조합 운영은 협회장이 임명하는 조합장이 담당하나 감독관(협회부회장 또는 임원)의 지휘를 받는다.
○조합 임원은 유급사원이며 임기는 1년, 연임할 수 있다.

◆실협 총회서 차선경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근우 실협 법률고문, 김현모 전이사장, 이형인·김영대 전회장, 조기연·김이열 부회장

◆협회 명칭 개정안이 부결되는 순간. 박경택(가운데), 박찬도 선거관리위원이 찬성자를 세고 있다.

대통령초청 귀국

박인순·송광석 한인회장

◆박인순 한인회장

박인순 토론토한인회장은 부인 옥구현 여사와 함께 28일 귀국한다.

전두환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박회장은 오는 10일까지 공식일정을 갖는다.

전대통령은 지난 8월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토론토 교민들이 보여준 환영에 대한 답례로 박회장 부부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서는 오타와한인회 송광석회장 부부도 초청받았다.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은하 보석
란 대
홈 리
화 점
장
품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
국
선
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10/19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일반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1.5%		10.25%
90일	12%		10.75%
180일	12%	11.75%	10.75%
365일	12%	11.75%	10.7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한응렬씨 런던서 피체

살인미수 혐의 받아

"부인에 행패", 미국서 인도요청

2가지의 2급 살인기도혐의및 1급 무단가택침입 혐의로 미국경찰의 추적을 받던 전 토론토 교민 한응렬(48)씨가 지난 20일 온타리오주 런던의 아들 집에서 런던경찰에 체포됐다.

약 1년반전 토론토에서 미국 유타주로 이주, 지난 8월까지 부인과 그로서리 가게를 경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씨는 지난 9월24일 부인 한보옥(42)씨와 딸 샌드라(12)양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부는 8월말 이후 별거중이었다.

"가정문제로 발단된 사건이므로 혐이 확정되기까지 구체적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런던 경찰의 엘진·오스틴 담당 형사는 "무단침입 혐의는 이혼을 신청한 한씨부인의 거주지에 한씨의 접근을 경찰이 금지했음에도 불구, 한씨가 허가없이 들어간 혐의"라고 설명했다.

한씨에 대한 보석신청및 미국경찰로의 범인인도 여부 재판은 26일 하오 런던 지방법원에서 속개된다.

미국경찰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경우 유타경찰로 송환될 한씨는 런던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미국경찰로 인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오스틴형사는 전했다.

한씨는 평소에도 가정폭력이 심해 토론토에 거주할 때에도 부인과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부인과 딸이 한씨로부터 입은 피해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73년 캐나다로 이민, 78년 시민권을 얻은 한씨는 토론토에 샘터장학회를 설립, 잡지 「샘터」를 맡았다.

수년전 한씨와 함께 교회를 다녔다는 C씨는 26일 "그는 열심히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인에 난폭한 사람으로 평소에 말의 일관성이 없었다. 후처로 알려진 부인은 말이 없는 성격이었다"고 전했다. 1남1녀중 아들은 웨스턴·온태리오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다.

한때 토론토 연합교회에서 고등부를 지도했던 한씨는 사건발생후인 약 1달전 머리를 아주 짧게 깎은 모습으로 본 토론토 한국일보사를 방문, 구직신청했었다.

아듀! 도미니언·데이

상원"캐나다데이"인준

(오타와)연방 상원은 25일 7월1일 도미니언데이를 캐나다·데이로 바꾸는 안을 정식으로 인준함으로써 도미니언이란 이름은 이제 대 수퍼·마켓으로만 남게 됐다.

상원은 1867년 부터 불리워진 도미니언이란 이름을 캐나다·데이로 바꾸자는 개명안을 282대 13으로 통과시켰다.

"도미니언"이란 이름은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영국제에게는 중요한 전통적인 의미를 먼저, 일부 영국계 의원들의 반발을 받았었다.

캐나다 정부가 도미니언·데이를 캐나다·데이로 바꾸려던 움직임은 연방정부가 헌법을 영국의 손에서 캐나다의 손으로 가져온 뒤 박차가 가해졌었다.

호텔건설붐

7건 1,342개

(서울26일＝연합)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한국에 호텔 건설붐이 일어나고 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서울시에 신청된 건수는 7개 호텔에 1342개 룸이다.

이 호텔들은 금년말 또는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착공된다.

78년도 한국호텔 전축허가수는 6개였고 79·80년에 3개, 81년에 1개에 불과했다.

◀사 고▶

선녀의 나들이 사진 : 이기성 모델 : 함승희

출품마감 연기, 11월10일로

사진협회와 본사가 공동주최한 제7회 사진대회 출품마감일을 10일간 연장했읍니다.

출품을 하실 분은 오는 11월10일까지 본사로 보내시면 됩니다.

출품수및 크기 : 프린트 7매까지(5"×7"이상이나 8"×10"이상이 바람직함)
슬라이드 10매까지(35㎜86㎝×6㎝)

부 문 : 칼라, 흑백, 슬라이드

접 수 처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
M6H 1Z7 (Tel : 533－2361)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결혼 예물, 보석시계

OMEGA
다이아몬드
반 지
목걸이
팔 찌
귀걸이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TORONTO B.536－1692 R.245－3539

IATA
〈특별할인봉사〉
모국 방문단 월 1회 단체출발
10월26일
11월21일
12월26일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DeWitt
JEWELS LIMITED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Reg. 1,000.00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5천에 산 가짜영주권 들통
알선한 여행사 주인 수배
돈만날리고 추방령·이민관도 끼인듯

연방경찰(RCMP)은 메트로·토론토의 불법체류 그리스인들의 이민서류 조작 및 매매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으로 2명이상의 불법이민자가 거액의 돈을 날리고 추방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알선한 여행사 주인이 이민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지금까지 이민관에 의해 조사받은 그리스인의 수는 10여명이며 적어도 1명의 오타와 이민관도 사건에 관련됐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 6주전 이민국에 붙잡힌 한 그리스인(24) 부부는 금년초 블루어·스트릿·웨스트의 그리스계 여행사에 5천달러를 내고 79년에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서류를 조작했다.

79년 9월 여행비자로 캐나다에 온 이들 부부는 이 위조서류를 근거로 소셜·인슈어런스 넘버와 취업허가를 받았다.

이들이 붙들린 것은 6주전 미국에 가려다 버팔로 관문 피스브릿지 미국이민관의 조사를 받은 데서 발단된다. 이들이 소유한 그리스여권에 찍힌 소인은 분명히 캐나다 이민국의 것이나 컴퓨터에는 이들의 영주권자기록이 없어 이상히 여긴 미이민국이 캐나다 이민국에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결과 이민국은 이민국 서한및 도장이 위조된 것을 밝혀냈다.

이 조사에서 이와같은 위조서류로 시민권을 신청한 또 다른 그리스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건의 사건이 수사중에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메트로 경찰의 맬·머프티 경사는 블루어에서 여행사를 하던 조지·콘타시스씨에게 지난 9월20일부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현재 콘타시스씨는 그리스에 체류중이라고 말했다.

19일로 연기
워커톤시상식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회장 천중환)은 오는 29일에 가지려던 워커톤(보행마라톤) 모금 시상식을 11월19일(금) 하오7시로 연기했다.

이것은 지난 2일에 가졌던 양로원 기금모금을 위한 워커톤에서 약정 받았던 금액이 완전 수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로원위원회는 시상식에서 최다 금액모금자 5명, 최다 스폰서 확보자 5명등 10명에게 10-스피드 변속자전거 1대씩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바로잡음—
회장후보등록 27일 하오5시

26일자 1면 머리기사중 제18대 한인회장 선거의 후보등록마감일은 26일이 아니라 27일입니다. 회장후보 등록은 토론토한인회에서 27일 하오5시까지 접수합니다.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김윤배씨 참가

내년 2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 캐나다대표로 교포 김윤배(41)씨가 출전하게 되었다. 토론토 1199 벌치마운트(스카보로우)에서 베커를 경영하고 있는 김씨는 공인 6단으로 지난 추수감사절연휴(10월9일, 10일 양일)에 해밀톤에서 열린 캐나다·오픈·바둑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 세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캐나다·오픈 우승자인 일본인과, 김윤배씨와 같은 준우승자인 이세주씨는 과거에 세계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김씨가 캐나다대표로 선발되었다.

캐나다바둑협회 규칙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회에 출전한 사람은 또다시 출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박세주씨도 준우승을 했으나 캐나다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대회 출전자격을 상실했다.

뉴욕 코스모스
한국팀과 경기

(서울26일=연합)북미 프로축구 리그(NASL)의 82년도 챔피온 뉴욕·코스모스가 내한했다.

한국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의 전력향상을 위해 코스모스를 초청, 전주·마산등지에서 수차례의 친선경기를 갖는다.

구독 신청은
(416)533·2361

〈제5계절〉
진짜 거짓말
김인호(서양화가)

◆김인호씨

『아득한 옛날 우리 나라에 처음에는 임금이 없었더니, 한 사람이 태백산 배달나무 밑에서 탄생하셨다. 거룩한 뜻과 밝은 지혜를 가졌으므로 나라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우니,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때에 왕위에 오르고, 나라이름을「조선」이라 하였다. 이어른이 곧「단군」이시다.

그 뒤에 은나라 동쪽으로 오셔서, 백성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며, 여덟가지 조목의 가르침을 베푸시니 착하고 어진풍습이 마련되었다.』

지난 400년동안 조선의 어린이들이 배운 옛날애기에 나오는 중국 은나라의 성인 기자에 대한 기록은 사대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고 근대의 역사가들은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우리에게 깊이 뿌리박힌 이「기대는 마음」때문에 많은 우리 조상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우리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며, 능력없는 자는 능력 있는 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진리를 슬프고 억울하게 생각하며, 남의 도움을 받으면 곧 구속을 당한다는 간단한 사실도 외면하고 있다.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나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만의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전해 줄 필요는 없다. 비디오게임에 정신을 다 뺏기고, 구구단을 외우기 전에 전자계산기 사용법을 매스터해야 하는 이 땅에 태어난 새나라의 어린이들에게「한국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라」든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막연히「하느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므로 우리 한국사람들은 아름다운 나라에서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는 얘기는 잘 통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재미있고 이치에 맞는 옛날얘기 하나 들려주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옛날도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하느님나라에 커다란 산이 하나 있었다. 그 산 깊은곳에 조그만 옹달샘이 있었고 그 근처에 흰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토끼가 옹달샘에 내려 갔다가 물이 하도 맑아 세수도 못하고 물만 한 모금 마신채 그냥 돌아왔다.

착한 토끼를 보신 하느님은 이 토끼가 곧 이 산의 주인이 되리라 생각하셨다. 과연「아끼는 마음」뿐 아니라, 아끼는 것을「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슬기로운 토끼는 이 산의 주인이 되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 후 하느님이 이 세상에 착한 토끼를 생각하시며 동방의 아름다운 곳에 조그만 나라를 만드셨으니 지금도 세상사람들은 이곳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 부른다.』

지도를 펴놓고 한국을 자세히 보라. 무엇을 닮았는지.

金聖鍾작
최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붉은 사나이
<95>

얼굴없는 死者 ⑲
컴퓨터에 나타난 毛世는 65살 轢死者

「프런트에서 동록표대로 적는데 가짜인수가 있나.」

「동록표가 위조라면 모든게 가짜일 수 밖에 없지요.」

「하긴 그런것도. 그런데 말이야」

김형사는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적어갔다.

「가짜 이름인지 진짜 이름인지 그건 접어두고 말이야. 모세(毛世)라는 사람이 정말로 피살자인가?」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형사는 믿고싶은 심정이었다. 모세라는 사나이의 존재가 거의 믿고 있었다. 모세라는 사나이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을수록 그의 믿음은 확신에 가까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컴퓨터에 넣어보지. 확실히 드러날테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럴 생각입니다.」

센터로 돌아온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보고했다. 센터에서는 그것을 귀중한 단서로 생각하고 즉시 컴퓨터에 이름과 동록넘버를 넣어보았다. 그러나 모세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동록넘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M56499-2761388은 임규식(林圭植)이라는 사람의 동록번호임. 임규식은 서울강동구C동 276번지에 거주했던 남자로서 198X년 1월11일 교통사고로 사망함. 사망 당시의 나이는 65세.」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마인은 누구보다도 놀랐다.

「아니, 이런수가…」

「2년전에 죽은 사람의 동록넘버가 살아서 이용되고 있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군.」

모두가 이해할수 없다는듯 복잡한 표정들을 지었다.

朴 男 그림

「위조꾼의 동록넘버가 우연의 일치로 임규식씨의 생전의 넘버와 맞아떨어진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아니면 처음부터 죽은 사람의 것을 이용했던가.」

「하여간 임규식씨의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무엇이 있을테니까.」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그리고 그가 바로 피살자라는 생각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있었다. 센터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튿날 마인은 날이 새자마자 혼자서 강동구 C동276번지를 찾아갔다. 그 번지에서 그를 맞은 사람은 고인의 [illegible] 40대의 사나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illegible] 하고 있었다.

[illegible]

「정말 안됐군요.」

「그런데 보상도 한푼 못 받았읍니다.」

「그건 왜요?」

「차가 도망을 쳤어요. 목격자들 말로는 젊은 승용차였다고 하는데 끝내 찾아내지 못했지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어떤 개아들놈이 그랬는지…」

마인은 상대방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물었다.

「혹시 모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모세요? 뭐하는 사람인데요?」

「글쎄, 나도 몰라서 묻는 겁니다.」

더이상 그를 붙잡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였다.

◆"영화배우가 됐더라도 성공했을 것"이라는 트루도수상이 파이롯 복장을 하고 있다. 맥도날드·더글라스회사제 CF18 전투기 138대중 일부가 OO공군기지에 도착하자트루도수상은시승을자원,진짜조종사옆에서조종간을잡기도했다. 63세의 트루도는 "전투기가 내 멜세데즈·밴츠차보다 소음이 적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이 전투기를 NATO및 북미항공사령부 산하 군에 배치한다.

▲장·폴·벨몬드·주니어와 스테파니 공주.

그레이스·켈리 死亡쇼크
스파테니公主 杜門 不出

그레이스·켈리의 사망으로 극도의 쇼크를 받은 스테파니공주(17)는 최근 가족과 보이프렌드 장·폴·벨몬드·주니어(19)외에는 일체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있다고.

가족들은 스테파니의 정신상태를 우려, 그녀의 오랜친구인 벨멘드·주니어외에는 일체 접촉을 허락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로맨스는 깊어만 가고 있다고 한다.

벨몬트·주니어는 궁전내에 그의 숙소를 아예 갖고 있으며 아침식사후 [illegible] 거의 하루를 같이 보내고있다.

점심·저녁은 스테파니가족과 캐롤라인공주의 연인인 로베르트·로씨리니등과 함께 드는데, 측근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둘이 결혼에까지 이를지 모르겠다고 추측.

캐롤라인도 지금 현재 스테파니를 위한 최상의 치료방법은 벨몬드·주니어와 결혼 아이를 갖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것.

그러나 생전의 그레이스왕비는 스테파니와 벨몬드·주니어와의 교제를 적극 반대했었다.

연예 短信

"끔찍한 犯罪스토리"
「사이코Ⅱ」곧 開封

○…「사이코(Psycho) Ⅱ」의 제작이 완료 곧 개봉될 예정이다. 이 영화는 1960년 알프레드·히치코크 감독의 대표적인 드릴물「사이코」의 속편.

제작을 맡은 유니버설사의 은폐작전때문에 영화스토리가 잘 밝혀지지는 않고있지만 레건대통령의 저격범 존·힝쿨리 케이스와 유사하다는 이야기.

힝쿨리의 무죄선고가 내려지고 2주후에 제작에 들어간 이영화는 주인공 놀만·베이츠(앤소니·퍼킨스)가 전편에서 범한 끔찍한 살인행위로 감옥대신 정신병원으로 보내진다. 이곳에서 정신과의사의 정상인이 진단에 따라 사회에 돌아와 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스토리.

이 영화의 제작자 힐톤·그린씨는 『「사이코 Ⅱ」와 힝쿨리 케이스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하고 이 영화의 스토리는 레건저격사건이 있기 한달전에 만들어진것이라고 해명.

한편, 이영화에서 정신과의사로 나오는 로버트·라기아씨는 이영화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려 하지않는데 이것은 유니버설사가 출연진들에게 스토리를 발설치 않겠다는 언약을 받았기때문이라고. 영화대본의 마지막 8장을 보자고 청했을때 스튜디오 대표가 밀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읽도록했다고 라기아씨는 설명. 이렇게 안보조치를 철저히 한것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한 속셈인데 실제로 얼마나 쇼킹한 영화인지 자못 궁금.

옷벗는사진 포스터로
「톰·셀릭」소송을제기

○…인기배우 톰·셀릭이 옷을 벗고있는 자신의 사진을 포스터로 배부한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베릴컴뮤니케이션에서 배급하고있는 이 포스터는 셀릭이 셔츠를 풀어 앞가슴을 노출하고 내의도 없이 바지의 지퍼가 잠가지지않은 모습.

셀릭의 변호사는 이 포스터는 셀릭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터무니없는 포즈라며 사진조작이라고 말하고있다.

풍문여고
동창회
창립총회

창립총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부디 부부동반 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아 래 —

● 일 시 : 1982년11월 6 일(토) 오후 6 시
● 장 소 : 91 Dunmurray Blvd. (Birchmount × Hunting-wood)
● 연락처 : 조남정(Mrs. 최, 233-3349)
천영자(Mrs. 지, 640-4682)
고명희(Mrs. 양, 757-8323)
정희복(Mrs. 김, 1-668-4073)

김장철 새로운대매출

김장철이 다아 왔읍니다.
저희 식품점에서는 모든 김장준비에 모든 종류를 완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기간 : 10월20일(수)~11월20일(목), 1 달간.
품목 : 고추가루·새우젓·배추·무우·굵은파(김장용)
·갓·마늘·생강·김장통

(11월1일부터 판매실시)
고국상품대량입하!!
김장김치주문환영
—양념된 김장김치 한통에 25불
—양념된 총각무 한통에 40불

※김장철에 한해서 특별히 배달 해 드립니다.

274-5401
한밭식품
466 SOUTH SERVICE RD. —미시사가 한글학교 옆—

제6회
신춘문예 현상모집

이민생활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날이 짙어짐은 모국어에의 애착과 그 전통문화및 예술에의 향수입니다.
이에 이민사회에 한국문화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코자 숨은 문재의 발굴을 꾀하여 여섯번째 현상문예모집을 실시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30~60매
시(시조포함) : 편수 제한없음.
수 필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평 론 : 테마자유·200자 원고지 40매 이내
희 곡 : 200자 원고지 60~120매
아동문학 : 동화(200자 30매 이내)
동시(동요·동화시 포함)편수제한 없음
마 감 : 1982년 12월15일
제 출 처 : 캐나다한국문인협회
Korean Canadian PEN Club
5 Massey Square #2008
Toronto, Ont. M4C 5L6
발 표 : 1983년 1월1일
시 상 : 각부분 당선작 1, 가작 1.
심 사 : 문인협회 심사위원회
※응모작품에는 각편마다 반드시 이름(본명)·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적을 것.(필명이나 가명은 무효)

주최 : 캐나다한국문인협회

전통신학 도전받고 있다

"신이 전능하다면 왜 악이 존재하나"

최근 미국의 신학계에는 전지전능한 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프로세스신학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신학이론의 주요명제는 「만약 신이 전지전능하고 선하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이다.

더구나 구라파의 전통신학에 영향받아 인구의 90%가 신을 믿고있는 미국에서 신의 전지전능하지 못함과 악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때문에 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논란이 크게 대두되고있다.

태풍이 불어 재산에 피해를 주고 질병이 돌아 인명을 빼앗고 있으며 살인이 난무하고 예기치 않은 대형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은 아직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있다.

이런 문제는 최근 레바논에서 *있었던 팔레스타인 피난민의 대량학살이나 2차대전 당시 나치의 유태인대학살 등등과 연결돼 벌주기위해 신이 침묵을 지키고있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믿어지지않기때문에 전통적 신학이 도전을 받고있다고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고있다.

이분야의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은 신을 전지전능하다고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람으로 지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있다.

프로세스신학의 지도자인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의 존·코브교수도 문제는 전통적 유신론 방어자들에 지친 오늘날 세계에 관습적 신앙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성직자들이 심리학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대부분 신학자들이 성직자들에게 전연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목사 위임예배 한인(연합)교회

토론토의 한인(연합)교회는 뱅쿠버한인연합교회의 반병섭 목사를 초빙, 11월7일(일) 하오3시 동교회(69 William St, Weston: Hwy 401×Jane St.)에서 위임예배를 가진다.(연락처: 243-9543)

신앙부흥회 갈보리교회

갈보리한인장로교회(목사 안병한)는 31일(일)부터 11월4일(목)까지 매일 하오7시30분 데니스·굼멜 목사를 강사로 부흥회를 연다.

장소는 동교회(3817 로렌스·이스트) 연락처: 755-7979, 431-3635,7034

구독 신청은 (416)533·2361

노벨文學賞에 「말께즈」

콜럼비아태생 亡命作家…「고독의 1백년」저자

〈스톡홀름-AP·UPI종합〉 1982년 노벨문학상에 콜럼비아태생 망명작가 가브리엘·가르시아 말께즈(54)가 선정되었다.

스웨덴 왕실과학아카데미는 21일 발표를 통해서 「고독의 1백년」의 소설을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윌리엄·포크너와 어네스트·헤밍웨이의 영향을 받은 작가에 속한다.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망명생활을 한 말께즈는 쿠바의 피델·카스트로수상과도 교분이 있는데 그의 대표작 「고독의 1백년」(1967)은 32개국어로 번역되어 약1천만권이나 팔렸다.

말께즈의 수상은 콜럼비아인으로는 최초이며 남미작가로서는 4번째이다.

「고독의 1백년」의 소설은 남미의 정글지대에 살아가는 한가정의 피눈물나는 이야기를 그린것이다.

「핼리 혜성」1910年이래 첫목격

수백만마일 꼬리단 거대한 불덩이 주기76年…86年지구곁을 지나갈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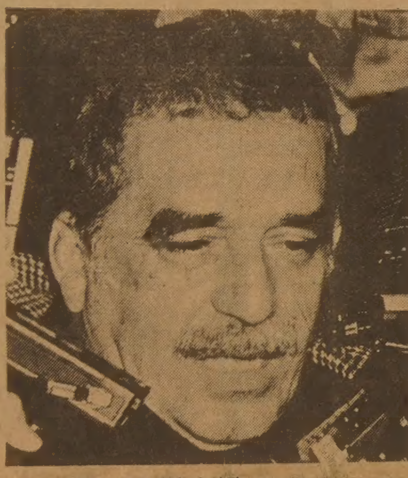
태양곁을 지날 때가장 밝게 빛나는 혜성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핼리혜성이 1910년이래 처음으로 최근 다시 목격되었다고 2명의 칼텍 천문학자들이 20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마운틴·팔로마천문대에 있는 직경 2백인치의 망원경과 지극히 감도가 높은 전자카메라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핼리혜성의 희미한 모습을 목격했으며 18일 이를 다시 확인했다.

얼음덩어리와 개스로 구성되어있는 핼리혜성의 주기는 76년. 따라서 1910년 지구곁을 지나간 이래 76년째가 되는 오는 1986년 다시 지구곁을 지나게 된다.

핼리혜성은 태양에 접근할수록 태양광선 때문에 수백만마일의 꼬리를 단 거대한 불덩어리처럼 보이게 된다.

핼리혜성과 지구사이의 여행거리는 9천만마일. 지난 1531년 핼리혜성을 처음 발견한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몬드·핼리의 성을 따서 핼리혜성이란 이름이 붙었다.



▲ 1982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백년간의 고독』등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콜럼비아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샤 마르퀘스씨가 8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됐다. 마르퀘스씨는 사회주의이념추구 카스트로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현재 쿠바에 자진 망명해 살고있다.

▲ 1982년도 노벨물리상 수상자 코넬대학의 케네스 윌슨박사가 1982년도 노벨물리상을 수상했다

〈독자 투고〉

손끝의 신비

민 혜 기 (힌치 거주)

털실옷 훼숀쇼에서

뜨개바늘과 털실로 온갖 디자인을 창작해 가는 손놀림. 한 바늘 한 바늘 떠나갈 때마다 아기들의 원피스로, 여인들의 이브닝·드레스로, 발랄한 젊은이들의 운동복으로, 오버코트로, 신사들의 자켓으로, 직장여성의 투피스, 또 드레스로, 심지어는 웨딩드레스까지로 신들린 바늘마냥 작품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10월2일 토요일 저녁 연합교회 친교실에서는 진명여고 동창회 주최로 편물훼션쇼가 벌어졌었다. 아마추어 훼션 디자이너 이은복 회원의 55개 넘는 작품을 가지고 우리 교포사회에 두번째로 선을 보이는 정성스럽고 화려한 여인들의 잔치였다.

친교실 중앙의 무대 양가에는 빨간 생화 장미꽃, 그리고 무대를 둘러싼 관람석에 가득한 300명의 교포와 외국인들. 클라식 뮤직으로 실내분위기를 포근하게 만들어 쇼가 시작되기 전부터 친교실 안은 화기애애하였다.

이광민씨와 임영빈씨의 사회로 시작된 쇼는 작품 하나 하나 선을 보일 때마다 관중들은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모델들은 회원, 아니면 회원의 가족들이었다.

블라우스가 10여개, 평상복, 스포츠형의 드레스가 10여개, 남녀 자켓, 또는 Cardigan이 17점, 남녀 풀·오버, 또는 코트가 모자를 곁들여서 10여점, 여인용 Suit가 3점, 이브닝·드레스가 5점, 끝으로 웨딩·드레스가 2점.

이 모든 작품들이 1년동안 한 여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을 넘어선 노작들이다.

은복은 나와는 여학교 동기동창이다. 그러기에 나는 이 옷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녀의 정성어린 바늘끝 하나하나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남편과 3자녀 그리고 풀타임 직장(그것도 뜨게질과는 전혀 다른)을 가지고 있다. 여가를 이용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며 버스안, 또는 서브웨이안에서 그녀가 가는 곳마다 바늘과 털실뭉치는 따라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뜨게질에 미친 여자"같았다.

토론토 훼션계에서도 편물 훼션은 일년에 고작 두번밖에 안열린단다. 그런데 한 개인이 일년동안 이만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같다.

그녀는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신경이 쓰여지는 일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바늘과 털실이다. 뜨게질은 그녀에게는 취미를 넘어선 예술이요, 신앙이요, 창작인 것이다.

웨딩·드레스가 선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벌린 입을 다물줄 모른다. 전인숙씨와 은복의 질녀 영애양에게 입혀진 웨딩드레스는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어 놓았다.

우아한 이브닝드레스들, 우리들끼리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관중들의 소리. 나는 여기서 한 여인의 집념과 불굴의 정신을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회원 각자는, 아니 회원들의 남편까지도 내일같이 자진하여 작품발표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한몫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준 것이다.

더우기 토론토 훼션계에서는 드문 동양사람으로 심슨과 이튼, 그리고 각종 훼션쇼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전인숙씨가 은복의 작품을 보고 쾌히 찬조출연을 해준 것은 이번의 작품들을 더 돋보이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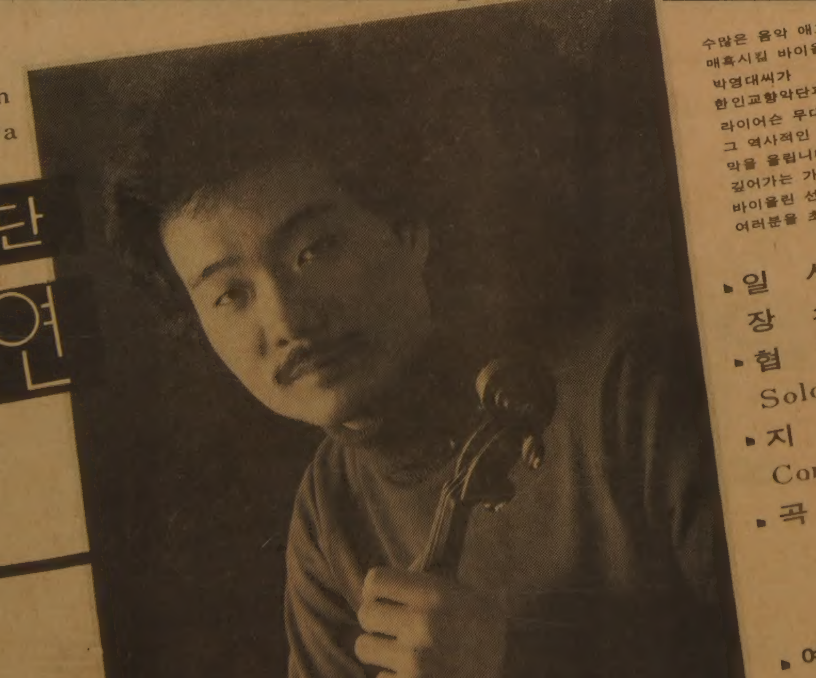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훼미리 · 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The 5th Concert of Toronto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토론토 한인교향악단
제 5회공연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을 매혹시킨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씨가 한인교향악단과의 협연을 라이어슨 무대에서 그 역사적인 막을 올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이올린 선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Nov. 13, 1982(Sat.) 8:00 p.m.
장 소: Ryerson Theatre(43 Gerrard St. E.)
▸협 연: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
Soloist: Young-Dae Park(Violin)
▸지 휘: 김승순
Conductor: Sung-Soon Kim
▸곡 목: ●Beethoven Overture Coriolan Opus 62
●Bruch Violin Concerto No. 1 in G-Minor Opus 26
●Mozart: Symphony #41 (Jupiter)
▸예매처: 각식품점 A석: 10불, B석: 8불

TORONTO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2900 STEELES AVENUE EAST, SUITE 220, THORNHILL, ONTARIO, CANADA L3T 4X1
연락처: 모자르트 음악학원 TEL: (416) 881-8211

"國校 週5日制수업 擴大"

李文敎, 國會답변

내년부터… 全面실시도 검토

李奎浩문교부장관은 22일 국민학교의 교실난부족해소와 교사업무량을 줄이기위해 현재 실험적으로 실시하고있는 국민학교 주5일제 수업을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국회문공위원회에 참석, 康源栄의원의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또『현재 서울5개교, 釜山4개교등 9개국민학교에서 실험실시중인 주5일제수업은 중간평가결과 매우좋은 성과와 반응을 얻었다』고 말하고 금년말 종합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확대실시할것이며 기회를 봐서 전면실시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어 대학입시에서「선지원 후시험」제의 실시는 그자체에 문제가있으나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입학력고사에 더 이상 어선택 지원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금년 출제에서 일본어가 쉽게 출제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秋穀수매값 7% 인상"

"收買量 7百萬섬 목표" 답변

"최소한 生産費보장을" 질의

國會 11개常委 질의 답변

◇국회文公委에서 與野의원들은 文敎行政 전반에관한 갖가지 문젯점을 신랄하게 추궁했다.

국회는 22일 法司 交通委를 제외한 11개 常委를 일제히 열고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들은뒤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특히 經科ー農水産委 연석회의를열고 금년도 秋穀收買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수매량을 농민이 원하는대로 늘리도록 촉구했다.

朴鍾文농수산장관은 이날 秋穀價에관해『정부의 재정, 물가안정등을 고려, 수매가는 7%인상하고 수매량은 7백만석을 목표로 관계부처와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錄音 3면

【經科ー農水産委】 金湜, 裵成東, 高判南, 郭定鉉, 金顯煜(이상 民正) 劉治根, 李炯培, 姜善性, 徐鍾烈, 李爽鎔, 吳上鉉(이상民韓) 金永光, 金鍾河(이상 국민) 愼順範(議政) 등은 질의에서 농민을위해 적정한 秋穀價책정과 정부의 합리적인 식량정책및 穀價支持대책을 촉구하고▲식량자급대책▲쌀을 담보로 하는 융자제도실시▲穀價심의위원회구성▲수매가 差等制실시▲糧特赤字해결방안등을 제시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물가상승을고려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할수있는 수준으로 수매가를 높이고 量도대폭늘리도록 촉구했다.

民正黨의원들은 수매가의 폭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방출米價의 현실화등 영농대책을 제시한반면 民韓黨과 議政同友會측은 수매가 20%이상, 국민당은 전년對比18.3% 인상을 주장하고 1천만석을 수매토록 요구했다.

金竣成부총리는 답변을 통해『추곡수매량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6백만섬에서다소 증가되도록 糧穀증권의추가발행등 多角的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금년도 추곡수매시기는 平年보다 5~10일정도 앞당기기위해 현재農水産部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농민의 생산비 보장과 지원을위한 穀物基金설치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에있다』고 밝히고『앞으로 農協을 통한 秋穀수매나 방출및 일부민간업자에게 맡기는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또『농업災害보험은 아직도 농민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災害통계자료의 불비, 국가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당장실시가 곤란하다』면서『年間 2천억원의 糧特赤字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朴鍾文농수산장관은『영농자금의 年末회수로인한 수확기의 추곡가격 下落을막기위해 일부 回收分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넘기는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답변하고『정확한 추곡의生産費집계를 위해 지역별로 선정된 전국3천3백75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중이며 내년초까지는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말했다.

【財務委】 朴鍾寬 柳漢賢 孫泰坤 金在暎의원(이상民正) 등은▲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추가방출여부▲通貨量30%선까지의 억제방안▲金利정책의 변경여부▲금년말과 내년에 발행될 國債의 상환계획▲證市활성화및 증권인구확대방안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의원들은 특히『內認可된 8개短資회사중 재벌기업의 출자금은 은행대출금상환으로 轉用, 재벌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한후『일부 上場기업의 株式僞裝분산에대한 정부의 강력한대응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外務委】 李範錫외무장관은『對아프리카協力을 위해 새마을운동 영농교관등 아프리카국가들의 관계기관과 연계수립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히고『이는 미국의 평화봉사단과 같은 성격의 기구로 발전될 가능성도있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中共미그기조종사 망명에 언급,『현재까지 中共으로부터 아무런메시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日本문부성의교과서검정심의회가 아직껏 구체적기준을 결정하지 않은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우리의 시정요구에대한 日本측의 심의기준을본뒤 다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保社委】 鄭漢株노동청장은「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위해 활발한 노동외교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公金利의 인하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이 어려운점을 감안, 재무부등 관계기관과 협의, 金利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대림통상(대표 李載鈺)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조사중이며 부당노동행위사실이 드러날경우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8월말 현재 不當노동행위로 인한 각급 구제신청건수는 1백15건이며 이중43건은 구제되었고 나머지는 意取下되거나 기각되었다』고 말했다.

美·北韓 직접貿易

禁輸조치 不拘 79~81년 31萬弗 규모

홍콩誌 보도

【홍콩AP=聯】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禁輸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79년부터 북한과 직접적인 무역관계를 맺어왔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경제주간지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지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이주간지는 미국정부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이에따라 對북한 교역도 거부하고있으나 미상무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북한간 79~81년사이의 무역총액은 31만달러에 이른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주간지는 비록 무역거래액은 소규모라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대해 禁輸조치를취하고있는이상 이같은 사실은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갖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간지는 미·북한간의무역내용에도 언급, 북한은 주로「금속·금속제품·섬유」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 산업용기자재·화학제품을 수입했다고 덧붙였다.

"民族精神함양 敎育場으로"

全대통령, 獨立기념관推進委員 초치

全斗煥대통령은 22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安椿生위원장등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임원41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독립기념관은 우리국민모두의 슬기와 힘을합쳐 수백년앞을 내다보고 원대한 계획을세워 역사에 길이남을 위대한遺産이 되도록 건립돼야 한다』고 말하고『독립기념관건립을계기로 모처럼결집된 국민모두의 一體感을 살려 이 운동이 국민적大和合의 轉機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독립기념관은 국민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교육장으로, 그리고 우리의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장으로 돼야한다』고 강조하고『독립기념관은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되도록 해야하며 건물도 우리문화의 특성을 살리고 주변환경도 공원이상으로 훌륭하게 造景해서 자손대대로 물려줄 유산이 되도록 건립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벨文學賞 마르케스

콜롬비아作家 "代表作「百년동안의 孤獨」"

◇마르케스氏

【스톡홀름AP合同=聯】스웨덴 한림원은 21일 콜롬비아출신의 좌익망명작가 가브리엘·가르시아·마르케스씨(54)가 남미작가로서는 4번째로 금년도 노벨문학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12면

스웨덴한림원은 현재 멕시코에서 작품활동을 하고있는 마르케스씨가「백년동안의고독」「족장의 가을」등의 대표작을통해 환상과 현실및민속문화가 조화된 세계를 창의력넘치는 필치로 묘사했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했다.

그는「백년동안의 고독」「족장의 가을」외에도「아무도대령에게 편지를쓰지않는다」「악마의 시간」「예고된 죽음의 연대기」등의 작품을발표했다.

独立紀念館 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興明工業(株) 1千27萬원

(金容春대표 임직원 一同)

◇金容春씨

<22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興明工業德沼工場	1백34만원
高麗人參興業(株)	1백34만원
서울석관국교 일동	1백20만원
陸士골프장 임직원	76만원
古物商聯 水原分會	31만원
승공경신聯 水原支部	16만원
大巡眞理會(제7지구 포항대도동)	10만원
高信産業 사원일동	14만원
百祚産業 직원일동	12만원
驛村성결교회男傳道會	10만원
上鳳2洞 咸鍾喆씨	10만원
成歡기독 평신도회	10만원
千戶3洞 전투 2중대	10만원
서울市警기동대尹순경	10만원
舍堂1洞 18통	10만원

▲興明工業(株) 대표이사 金容春씨外 本社임직원一同=1천27만2천원 ▲興明工業(株) 德沼工場 金世昌理事外 社員및勤勞者一同=1백34만6천3백98원 ▲高麗人參興業(株) 대표이사 李重燮씨外 임직원一同=1백34만2천6백원

▲서울석관국교(교장 정유진) 전교생(대표 6년 박영건, 5년 이현정, 인솔교사 구남용) 일동(2차분)=1백20만9천8백5원 【소년한국접수】 ▲陸軍士官學校골프장 朴尙洙씨外 임직원一同=76만3천원 ▲전국고물상연합회 경기지부 수원분회장 성낙봉씨 外회원一同(水原梅山路3가128)=31만원 【水原지사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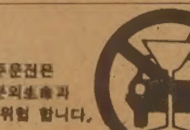
▲대한승공경신연합회 水原지부장외회원一同=16만3천원 【水原지사접수】 ▲(종단) 大巡眞理會 제7지구 포항대도동 대표 정계자씨外道人一同=10만원 【포항지국접수】

▲江東區千戶3洞전투2중대원一同=10만1천90원 ▲서울警察局제1기동대행정계 尹순경씨外 주민一同=10만5천원 ▲銅雀區舍堂1洞18통장 전상록씨外 주민一同=10만원(1반=1만6천원, 2반=1만3천원, 3반=1만8천원, 4반=9천원, 5반=8천원, 6반=1만원, 7반=1만7천원, 8반=1만4천원, 9반=5천원) ▲서울특산유치원(원장 김화자) 직원및원아(대표 노구영, 신수재, 김동근, 이정훈, 한경묵, 김이준, 김승연, 최유정)一同=7만원 【소년한국접수】 ▲江原道三陟郡道溪邑소달국민학교 교직원및 학생一同(3차분)=2만2천원 【도계지국접수】

▲鍾路區崇仁1洞10통7반 명예반장 홍경용씨외 주민一同=1만4천원 ▲京畿道 高陽郡 神道邑 東山里47의59 李得宇씨=2천원 ▲高信産業 社員一同=14만5천원 ▲百祚産業(株) 職員一同=12만6천7백원 ▲驛村성결교회 男傳道會一同=10만원 ▲東大門區上鳳2洞101의44 咸鍾喆씨=10만원 ▲天原郡 성환지역 기독평신도회(회장 김명진)一同=10만원 【成歡지국접수】 ▲新盤浦韓信12차아파트326棟주민一同=8만3천5백원 ▲新盤浦韓信12차아파트324棟주민一同=4만5천원 ▲下月谷七八親睦會(대표류태현)一同=5만원 ▲全南錦城市松月洞7통3반1030 임영태씨=3만원

▲鍾路2街洞26통3반 이종호씨외 주민一同=3만1천5백원 ▲보련각=2만원 광명사=2만원 섬불사=2만원 법륜사=2만원 태성불교사=2만원 불서보급사=2만원 경서원=2만원 이화불교사=2만원 ▲天原郡笠場面下場里 柳耕植씨=1만원 【成歡지국접수】 ▲銅雀區上道1洞126의134 박성우씨=3만원

◇서울석관국교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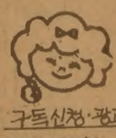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社會漫評

갸우뚱… 갸우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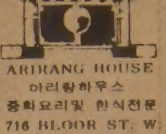
地平線

우리 둘레에서는 긴장과 화해의 變奏曲이 연주되고 있다. 美國은 10월초 東海서 大海軍작전연습을 실시 했었다. 極東소련해군은 미군의 이작전함대를 감시하면서 그함대에 대한 미사일발사 가상공격작전을 걸었는등 美·蘇간의 大海戰을 방불케하는 상황이 東海上에서 벌어졌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對北韓禁輸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9년부터 美·北韓간에 직접무역이 시작되었다고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가 최근호에서 보도 했다. 79년부터 81년사이 美ー北韓간왕복무역이 31만달러라고 하니 그규모는작지만 우리에겐 좀 충격적 뉴스가 아닐수없다. ▼리뷰誌는「직접무역」이란 용어를 썼으나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올82년 현재에도 그 무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또한 명백히 보도하지않았다. 리뷰誌가 미상무성 통계를「직접무역」의 근거로 삼고 있는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오히려 그 통계가 간접무역 현식으로 나타난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낸다. ▼79년이라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 그해 여름 카터미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던것이다. 카터대통령은 고 朴대통령과의 서울頂上회담을 마치고 韓國과 美國간의 3者회담을 北韓에 공동제의했다. 北韓은 이 3者회담을 거부했었다. ▼카터행정부는 이 北韓의 거부를 최종적인것으로 보지않고 韓美兩國이 제의한 3者회담은『죽은것이 아니라 살아있는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추측컨대 아마도 카터정부는 北韓을 3者회담에 응해오도록하는 한 방편으로 경제적으로 별뜻이 없으나 심리적, 상징적의미가 있는 非政府간 무역을 시도하지 않았나하는 관측이 나올수 있다. ▼그무렵 미국에서는 朴東宣사건, 駐韓美軍철수계획과 그 동결발표등으로 韓半島문제가 의회 言論界 學界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그당시 韓半島 긴장완화의 한 방편으로 미국관리·의회의원·언론인·학자들간에 자주 거론된것이 미국이 비공식무역이나 상업차관으로 北韓을 도와주는게 北韓을 폐쇄적, 好戰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주장이 미국 朝野의 주된 흐름이 되지는 못했다. 그때도 미국에서 美ー北韓간의 非政府간 무역이 이루어지고있다는 미확인보도는 나돌았었다. 리뷰誌의 보도가 충격적인것이나 未來指向的이기 보다는 過去事에 더 비중이 있어보인다. 하나 국제정치란 추측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낙관적 해석은 금물이다.



구독신청·광고 533-2361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자개전문가구"

La Maison Nacrebec Inc.

금년말까지 교민들께 도매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응접실 각종 테이블, 바-아 셑트, 부페 셑, 침대 셑
⊙자개의 멋과 품위를 이용한 "현대식 서양가구"

※지역 대리점이나 쎄일즈에 관심있으신분 연락 요망.

공장: ☎1-514-527-1403
집: ☎1-514-374-2846
4297 FRONTENAC MONTREAL, QUE.
대표 강유수

日,예비選擧戰 불가피

自民黨총재 單一후보옹립 어제時限넘겨

◇蘇機 쫓아내는 美機　버지니아주의 한해군기지 비행장에서 발진한 F14 톰캣機(左)1대가 20일 버지니아연안 공해상에서 소련의 TU95베어機를 쫓아내고있다。장거리 해상정찰및 첩보용으로 개조된 이 베어機는 美航母 새러토가號가 시험운항하는동안 인근상공을 약1시간정도 비행했다。【워싱턴21일AP電送=聯合】

主流·非主流 계속異見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자민당은 총재예비선거운동금지기간 마지막날인 22일까지 대화에 의한 단일후보옹립을 꾀했으나 주류·비주류 양파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예비선거가 불가피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스즈끼(鈴木)수상을 비롯, 후꾸다(福田)前수상, 니까이도간사장은 이날하오늦게 三者회담을 다시열어 예비선거를 피하고 단일후보 옹립을 위한 막후절충을 벌였으나 나까소네를 미는 주류와 후꾸다前수상간에 의견이 엇갈려 단일후보옹립에실패했다.

따라서 금명간 극적인 타결이 없는한 1백4만당원이 참여하는 예비선거가 실시되면 오는11월24일까지 투표가 완료되고 25일 자민당소속 衆參의원에 의한 본선거에서 새 총재가 선출된다.

한편 주류는 예비선거를 피하기위한 便法으로 兩院합동의원총회를 열고 임시전당대회를 소집, 이번에 한해 예비선거를 거치지않고 4명 후보중에서 兩院 합동의원총회가 새 총재를 선출하는 방안을 강구중인데 후꾸다, 고오모또, 나까가와등 비주류는 주류가 黨規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을 빌어 예비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分黨도불사하겠다고 맞서고있다.

日自民 두派閥의 고민

자민당총재선거를 공고하기 하루전인 지난 15일밤, 다나까(田中)前수상은 스즈끼(鈴木)수상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나까派에서는 새총재후보를 내지 않겠으며 스즈끼派도 후보를 내지않는것이 좋겠다. 나까소네(中曾根)장관을 단일후보로 밀자』

스즈끼派는 非주류가 난립한 틈을타 自派에서도 미야자와(宮澤)후보를 옹립하자는 의견이 젊은 의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으며 너무키 후꾸다前수상이『나까소네만은 안되겠다. 미야자와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의경을 스즈끼수상에게 넘지시 던진바도있어 스즈끼派의 自派후보옹립론은 강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나까전수상의 심야전화가 스즈끼派 후보옹립을 단념케했고 주류는 나까소네장관을 단일후보로 결정했다.

다나까前수상이 나까소네를 지지하는 최대이유는 내년봄에 있을 록히드재판이라는 최대시련을 맞아 궤멸위기에 처한 다나까派를 감싸줄 인물로 지목했으며 다나까자신이 정치적으로 살기위한 전략이라는것이 일본정계의 중평이다.

자민당은 1주일동안의 예비선거금지기간 마지막날인 22일까지 스즈끼수상, 후꾸다前수상, 니까이도(二階堂)간사장등 3者회담을 4차례나 열고 대화에의한 총재선출을 꾀했으나 결국 나까소네를미는 주류와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비주류가 팽팽히 맞서 난항을 거듭해왔다.

후꾸다, 고오모또(河本), 나까가와(中川)그룹등 비주류 3派는『스즈끼정권이상으로 다나까영향을 많이 받는 나까소네만은 안되겠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주류측은 수상과 총재와의 분리, 총재와 간사장의 안배등을 타협안으로 조정을 계속 시도해온 것이다.

이렇게 주류가 나까소네를 단일후보로 밀면밀수록 비주류는 反나까소네쪽으로 단합되어 협상이 결렬만을거듭, 예비선거를 향해 돌입해야한 운명에 처했다.

록히드非違 구설수 우려　다나까
아베 最下位때 打擊고려　후꾸다

후꾸다前수상을 비롯한 비주류가 나까소네장관에 대해 반대하는이유중에는 72년 다나까와 후꾸다와의 싸움에서 나까소네가 다나까쪽을지지했고 오오히라(大平)와후꾸다와의「40일抗爭」에서는 비주류쪽에서서오오히라공격에앞장섰었으나 80년 오오히라의 불신임안표결때는 다시 주류쪽으로전향, 오오히라·다나까派에합류했다는점이었다.

같은 群馬縣 제3선거구출신이어서 총선때마다 늘 두사람사이에 알력이 있었기때문에 후꾸다씨는『내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한 변절자인 나까소네를 수상에 앉힐수없다』고 말하고 나까소네가아니면누구라도좋다고까지감정적으로 대립하고있다.

비주류의 성격상 잘조화될수없으나 反다나까, 反나까소네만은 뜻을일치하고 있어 나까소네 정권출현을 저지하기위해 예비선거가 불가피하다는게 22일하오까지의 판단이다. 예비선거가 실시되면 고오모또씨가 단연 우세할것이 확실시되며 은메달을놓고 나까소네와 아베(安倍)가 다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백4만 당원중 5만명밖에 확보하지못한 나까가와科技廳장관은 가장 열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동정표와「北海道의곰」이라는별명에 걸맞게 박력있는 행동력으로 아베를누르고 동메달을 딸가능성이없지도않아 후꾸다派는 불안을감추지못하고있다.

주류와 비주류간에 22일을 고비로 막바지 줄다리기를벌여왔지만 결국 예비선거가불가피한 국면에 접어들자 양측은 모두 1~2일 더 시간을두고 계속 대화를 벌일 한가닥 가능성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있다.

다나까派는 예비선거가 실시됐을 경우 비주류측으로부터 록히드사건에 대한 비위를 들어 공격해오면 나까소네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성공한다해도 상처는 좀처럼 아물기 힘든 상태이다.

후꾸다派도 아베가 예비선거에서 맨하위를 했을 경우 다음 다음 수상자리를 노리는 아베로서는 결정적타격을 받게되어 재기불능상태에 빠질것이라는 점에서 모두가시간의 흐름을 초조속에서보내고 있는 것이다.【東京=宋孝彬특파원】

蘇機 極東기지 확인

사할린 맞은편「백파이어」2개大隊 50대

【東京AP=聯合】소련해군은사할린 맞은편 시베리아연안의 알렉세예프스카야 극동기지에 백파이어 초음속폭격기2개비행대대 약50대를 배치하고 있다고 일본 東京신문이 22일 전했다.

이 신문은 정부소식통을 인용, 또한 소련공군은 바이칼湖西부인 이루쿠츠크부근의 벨라야기지에 1개비행대대인 약20대의 백파이어機를 배치했음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소련의 極東지역 백파이어機배치기지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지적된것은 처음있는일이다.

이소식통들은 소련 백파이어機들이 일본상공을 통과하지않고 極東기지로부터 알래스카 알류산열도 오호츠크海및 태평양으로 비행할수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들은 장거리 백파이어폭격기들이 때때로 極東기지로부터 알래스카 日本海및 日本의 태평양연안으로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또 蘇聯이 極東의 해군소속 백파이어機를 증가시키기위해 極東지역에 또다른 백파이어機기지를 건설하고 있는것같다고 전했다.

蘇聯은 AS4空對地미사일을 적재한 약2백50대의 백파이어폭격기를 배치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유엔追出을철회 회원국資格은 留保

21개아랍國대표들

【유엔本部聯AP=聯合】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포함한 21개유엔주재 아랍국대표들은 21일 이곳에서 비밀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을 유엔총회로부터 축출시키려던 당초의 계획을 정식으로 철회하고 그타협안으로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이스라엘자격문제에대해 유보적인태도를 표시하기로 결정했다.

스페인 緊張

28일 總選앞두고 테러·쿠데타說

【마드리드AP=聯合】오는28일의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일부정치단체들이 이번 총선에대한 파괴공작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고조되고있다.

스페인북부 빌바오에서는 21일 바스크분리주의자로 믿어지는 테러범들에 의해 육군중위1명이 총격을받아 중상을 입었으며 바스크州의수개도시에서는 20여개이상의 회사들이 바스크 분리운동조직인 ETA가 요구한『革命稅』를 내지않았다는 이유로 폭탄세례를 받았다.

또한 마드리드에서 발행되는 日刊ABC紙는 군부의쿠데타음모에 대비, 환·카를로스왕의 거처인 사르수엘라宮수비대가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印언론법 撤回요구

言論人들 示威행진

【뉴델리PTI·UPI=聯合】인도전역으로부터 모여든 근3천명의 기자들과 언론계종사자들이 21일 언론자유의제한규정을 담고있다는 비하르州의 언론법안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면서 국회의사당을 향해 시위행진을 벌였다.

이 항의시위에 나온 야당지도자, 신문편집자, 노조지도자등 연사들은 이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목표를 둔 위헌적인 처사라고 규탄했다.

문제의 법안은『품위에 어긋나고 악의에 찬』기사를 싣는 기자와 발행인들에게는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을내릴수있으며 이법을 위반하는발행인이나 기자를 영장없이체포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波고위銀行家 美에 亡命

트로이만, 美서 스파이 행위해와

【뉴욕AP=聯合】미국에 체재하는 폴란드은행가 중에서는 최고위자이며 폴란드를 위해 스파이로 활동해온 안드레이·트로이만이 가족과함께 미국에 망명했다고 뉴욕·타임즈紙가 22일 보도했다.

타임즈지는 정부및 정보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트로이만과 그의아내 그리고 딸이 워싱턴에서 당국의 보호하에 중앙정보국(CIA)및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트로이만은 폴란드 재무성이 관할하는 한들로비은행 북미 사무소 대표로서 이사무소를 개설하기위해 지난 79년 뉴욕에 왔다.

非常사태 에콰도르 勞動者 총파업

【키토(에콰도르)AP=聯合】에콰도르노동자들은 21일오스발도·우르타도 대통령이 24일밤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령을 무시한채 수도 키토와 과야킬등 2대도시에서 밀가루와 휘발유등의 가격인상에 항의, 24시간동안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에콰도르 3대노조의 촉구로 촉발된 이 총파업으로 키토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공공교통수단은 마비되고 각급학교와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

◇리즈「生涯」製作영화社 告訴　허락을 받지도않은채 자신의 생애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영화「엘리자베드·테일러·스토리」의 방영을막기위해 ABC TV를 상대로 고소를제기중인 배우 엘리자베드·테일러가 21일 기자회견을하고있다. 오른쪽에 보이는사람은 그녀의 변호사인 로버트·엘리어트씨.【뉴욕21日UPI電送=聯合】

海外토픽

고양이 不法탑승

★점보旅客機 발묶여소동

호주의 한 점보제트여객기가 고양이 한마리때문에 공항을 이륙치못하고있다. 퀀테스정기항공여객기의 한 대변인은 비행기가 피지섬을 이륙, 시드니로 가는도중 비행기내 취사실에서 고양이가 발견됐으며 이 문제의 고양이는 브리즈베인과 싱가포르에서 화물을 적재할때 비행기에 불법탑승한것 같다고 언급.

그런데 문제의 고양이를 잡기위해 승무원들이 우유와 생선미끼를 사용했으나 실패, 결국 독살까지 생각했지만 이것 또한 고양이가 기체내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곳에서 죽을경우 승객들에게 악취를 풍길 염려가 있어 이래저래 항공사측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시드니=聯合】

외설音盤 처벌主張

★포클랜드戰爭 비난담아

포클랜드전쟁을 비난하는음반이 출반된데 분노한 한 영국의회의원이 정부에 대해 이를 취입한 로크그룹을 외설물출판혐의로 당장 처벌하라고 주장.

보수당소속의 팀·에가의원은 포클랜드전쟁에서 전사한 1천명장병들의 어머니들이 지난16일 발매된이 음반을 듣는심정이 어떠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들을 당장 처벌하라고 호통.【런던=AP】

內外動靜

▲全斗煥대통령은 제4회 敎皇즉위일을 맞은 요한·바오로2세교황에게 축전을보냈다.

한국일보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戰後세계와人物

닉슨이 본 激動 現代史의 主役들★ <5>

맥아더와 요시다

◇1954년 요시다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을때 뉴욕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맥아더원수를 찾았다. 맥아더와 요시다는 똑같이 개성이 강한 인물이었으나 맥아더의 창조적 능력과 요시다의 현실감각이 이상적으로 조화되어 敗戰일본을 민주국가로 부흥시켰다.

1951년의 한 봄날하오 요시다·시게루(吉田茂)수상은 벚꽃파티를 열고 있었다. 파티도중 요시다는 트루먼 美대통령이 맥아더를 한국파견군사령관, 일본점령군사령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해임했다는 통고를 받았다. 충격을 가라앉히기위해 그는 파티장을 벗어나 30분동안이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요시다는 감상에 잠겨있을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맥아더와 트루먼은 격렬한 정치 투쟁을 벌여왔고, 이 싸움은 맥아더의 패배로 끝난것이다.

트루먼의 행위가 옳든지 그르든지에 관계없이 앞으로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맥아더없이 계속 발전시켜나가야할 과제였다. 요시다는 일본의 敗戰직후인 1946년부터 그가 추진해 온 美·日講和조약 협상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도 미국대통령의 행위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맥아더가 일본을 떠날 때 요시다가 일본국민에게 행한 연설에서 그는 맥아더를 위해 외교적표현의 정도를 넘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맥아더장군이 일본을 위해 이룩한 업적은 역사의 기적과같다.…그가 일본국민들로부터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인은 그를 떠나 보내는 일본국민의 섭섭한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말이 없다』

내가 맥아더를 처음 본것은 1951년 내가 상원의원이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양원합동회의에서 그의 유명한『老兵은 죽지않는다』는 연설을 들었다.

현대 정치사상 가장위대한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이 연설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神話에 나오는 신과 같았다. 그의 표현은 최면술처럼 강한 흡인력이 있었다. 연설은 계속되는 박수로 자주 중단됐다.

그가『老兵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고별사를 마지막으로 연설을 끝냈을 때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뢰같은 박수를 보냈다. 맥아더의 이날 연설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해진 연설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추종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었다. 어떤 국회의원은 神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또 어떤 상원의원은 맥아더의 연설이 공화당 의원들의 눈물을 적셨고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팬티를 젖게 만들었다고 우스개소리를 했다.

天賦의 통찰력에 접근힘든 英雄

요시다는 필요따라 변화하는「千의얼굴」

敗戰일본을 민주사회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이 맥아더와 같은 점령군 사령관을 만났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요시다와 같은 지도자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역시 일본의 행운이었다고할수밖에없다.

맥아더와 요시다는 똑같이 개성이 강한 인물이었지만 패전 일본의 민주 부흥 과정에서 보여준 두사람의 관계는 이상적이었다.

일본의 처칠이라고 불리는 요시다를 내가 처음 만난것은 맥아더의 고별연설이 있은 2년후 東京에서였다. 요시다는 약속시간에 몇분늦게 나타났다. 그는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있었다. 늦은 것을 몇번이나 사과하면서 코피가 나서 그랬다고 했다. 지난 밤에 캐비어(철갑상어 알젓요리)를 너무많이 먹은 탓인것 같다고 열적게 웃었다. 政務가 바쁘다는 설명을 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할수 있는 정치인은 만난적이 없었다.

요시다에게서 받은 이런 첫 인상은 그후 접촉하면서 그의 개성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맥아더는 영웅이었으며, 그를 만나는것은 하나의사건이었다. 그가 은퇴한후 내가 자주 찾아갔을때도 그랬지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가 방안을 큰걸음으로 왔다 갔다하며 생각나는대로 떠드는 이야기를 아무소리 없이 들어야한다. 맥아더가 이처럼 거리가 느껴지는 인물이라면 요시다는 인정이 많고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었다. 시가를 피우며 가끔 장난스럽게 웃는 그는 의자에 푹 기대앉아 즐겁게 상대방과 최근 정보를 교환하며 대화에 열중했다.

두사람은 비슷한점이 많다. 두사람 모두 책을 열심히 읽는 지식인이었고 70대에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정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같다. 태어날 때부터 勝者의 위치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남의 앞에나설때 늘 위엄과 권위가 따라다녔다.

그러나 맥아더는 위엄있는 태도를 누그러뜨린 일이 없다. 반면에 요시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상스러운 짓을 함으로써 주변에 상쾌한 인상을 주었다. 국회중 사회당의원에게『바보』라고 욕설을 퍼붓는가하면 귀찮게 구는 사진기자의 머리에 물을 부어버린 적도 있다.

맥아더는 거만한 이상주의자였고 요시다는 완고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러나 패전후 일본은 이 두사람을 필요로 했다.

◇1946년 일본방문때의 아이젠하워와 일본점령군사령관 당시의 맥아더장군。아이젠하워는 한때 맥아더의참모였으나 2차대전이 끝난후 공화당대통령후보지명전에서 맥아더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맥아더의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다면 필요한 개혁이 시행될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요시다의 세심한 주의력이 없었다면 맥아더의 이런 개혁은 일본을 더욱 큰 혼란의 와중에 몰아넣었을 것이다. 동양을 모르는 서양인 맥아더와 서양을 모르는 동양인 요시다는 일본열도에서 만나 東西洋의 문화처럼 서로의 구상을 보완, 하나의 강력한 자유국가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맥아더가 트루먼에 의해 해임된후 1964년 그가 죽기까지 10여년동안 주위의 정치적 환경은 그의 진가를 발휘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본점령군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1948년 맥아더는 공화당대통령후보지명전에 뛰어 들었었다. 그러나 첫번째 지명투표에서11표밖에 얻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다. 1952년 지명전에서는 아이젠하워의 政敵인 태프트를 지원했으나 결과는 아이젠하워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戰後日本은 두相極이 만든 걸작품"

맥아더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그는 사령관으로서 군대안에서 행사하던 권한보다 훨씬 제한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많은 갈등을 느꼈을 것이다. 맥아더는 그의 이상적이며 창조적인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요시다와 같은 인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가 해임되어 미국에 돌아왔을때 미국은 열광적으로 그를맞았다. 그에게는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직후 국민들은 그에게 등을돌리고 그의 경쟁상대인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노골적으로 파벌을 만들고 그로인해 끊임없이 정치적분쟁을 일으키는 인물을 피하고 단결과 절제를 아는 인물을택한것이다.

맥아더는 필리핀을 일본으로부터, 일본을 천황숭배의 전체주의로부터,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나 맥아더는 바로 이런 그의 업적때문에 분쟁을 일으켰고 그의 조국에서 정치적 망명생활을 해야했다. 그것은 미국에 아시아를 이해하고, 맥아더를 이해하는사람이 거의없었기때문이다. 맥아더가 거의혼자힘으로 해낸일들이 極東지역에서의 미국이익을 2차대전후 20년동안 지켜주게됐다는사실을 당시에 이해할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맥아더를 숭배하는 사람가운데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어째서 미국 지식층에게 그토록 인기가 없었는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맥아더는 그의 뛰어난 통찰력으로 이미 1930년대에 일본군사력의 팽창이 태평양지역의 위협이 될것임을 예견했었고 한국전쟁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일으킨 의도가 한국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전체를 제패하려는데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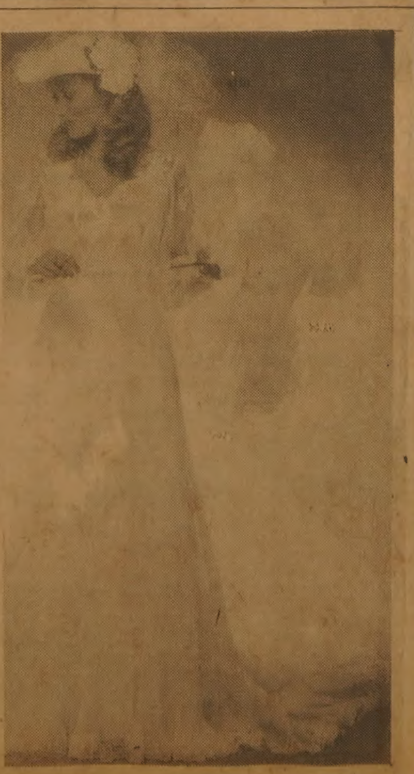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Eglinton
Millwood
Bayview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海外 스포츠

「맥주球團」美國서도 판쳐

프로野球 82년 월드 시리즈 決算

底力의 카디널즈, 막판서 뒤집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가 월드시리즈 최종 7차전서 밀워키·브루어즈에 역전우승하자 홈팬들이 그라운드안으로 밀려들어 열광하고있다.

82년시즌 美國야구팬들을 들뜨게했던「맥주전쟁」이 끝났다. 승자는 우승의기념으로, 패자는 위로의 잔치로 저마다 맥주통을 깨뜨리고 붓고 마셔댔다. 82년 美國야구시즌은 이렇게 맥주파티로 막을내렸다. 맥주의도시 밀워키에서 팀을 세운이래 처음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던 브루어즈는 이름그대로「양조장」팀이고 이에맞선 세인트루이스팀은 맥주왕국 안호이저·부시 소유의 명문구단 카디널즈다. 그래서 두팀의 대결은「맥주싸움」, 「거품시리즈」로 지칭되기로 했다.

밀워키가소재한위스콘신州의 리·드레퓌스州지사는 세인트루이스를 가진 미주리州 크리스터퍼·본드州지사와 맥주4박스를 걸고 서로 자기팀의 우승을 내기했다. 헨리·메이어 밀워키시장도 세인트루이스의 빈센트·셰멜시장과 1박스의 맥주내기를걸었다. 밀워키와 세인트루이스의 월드·시리즈는 술의 도시 맥주잔치로 더욱풍성한 화제를 만들어 냈다.

없었다. 애송이 브루어즈의 탄생을 밀워키시민들은 하품으로 맞았다. 창단후8년동안 밀워키·브루어즈는 한번도 밀워키시민들을 놀래줄만한 일을 만들지 못했다. 72년 한해의 동원관중은 60만명.

우승을 차지하던날 밀워키 시민들은 브루어즈의 카운티·스타디움과 시내중심가를 누비며 우승팀 팬으로서의 환희를 만끽했다. 지나친 흥분으로 승리의 시위중 1명이 숨지는 불행까지 일어났다.

◇밀워키·카운티·스타디움에 모인 홈팬들의환호에 답례하는 브루어즈의 간판스타 로빈·욘. 【AP=聯合】

밀워키의 야구팬들에게 82년은 매우 뜻깊은 해다. 그들은 지난65년 야구로부터 배신받은 아픔을 잊지 않고 있었다. 밀워키에 진을쳤던 브레이브스가 아틀랜터로 팀을 옮겨간 것이다. 밀워키시민들은 야구를 증오했다. 70년 앨런·셀리그가 밀워키에 새로운 팀을 만들었다. 밀워키·브루어즈에는 아무런 전설도 신화도

77년까지의 비참한 시즌이 끝난후 셀리그는 해리·달튼을 총감독으로 기용, 팀에 혁신을 일으켰다. 조지·밤버거가 감독으로 나섰다. 연간 1백62게임중 76승이상 올리지못했던 브루어즈는 78년 93승을 마크했다. 유료관중은 1백60만명을 돌파. 금년강적캘리포니아·앤절스에 2패후 3연승을거두어 처음 아메리칸·리그

카운티·스타디움의 구단주 박스에 앉았던 48세의 구단주 셀리그는 흥분을못이겨 천장을 주먹으로 내질러 피를 흘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51세의 갈톡 하비·퀜은 브루어즈의 코치로 금년시즌을 시작했다. 6월2일 그가 임시감독으로 임명되었을때 브루어즈는 23승 24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7개팀중 5위였다.

애숭이 브루어즈, 첫 우승의 꿈 霧散

어떻게 팀을 이끌어 갈 것인가. 퀜이 택한 방법은 선수들을 충분히 쉬고 놓게 하는 것이었다. 『지난 것은 잊어버려라. 차라리 칸트롤이 다음게임을 위해 더 유익하다』는 퀜의 생각대로 선수들은 맘껏게임과 다가올 게임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을 벗어버리고 놀랍게도 95승67패의 최고승률로 우승했다.

퀜의 팀 지휘방식대로 밀워키는 드리고제멋대로 대장간의 망치를 휘두루는 듯한 플레이·스타일을 가졌다. 그에 비해 카디널즈는 차가울 정도로 정돈되고 외과용 메스처럼 날카로운 팀.

월드·시리즈가 벌어지는 동안 밀워키 팬들은 브루어즈의 간판스타 로빈·욘의 활약에 열광했다. 잘때리고 달리고 잘던지는 욘이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6타수 4안타, 5차전에서 4타수 4안타를 날리자 팬들은 그가 타석에 나올때마다 『MVP(최우수선수)! MVP!』를 외쳐대며 그들의스타를 격려했다. 욘은 시즌동안 3할 3푼1리, 29홈런, 1백14타점을 기록, 브루어즈의 우승에 공헌했다.

왼손잡이 투수 마이크·콜드웰 역시 밀워키팬들의 자랑거리. 시즌동안 17승 13패를 기록한 콜드웰은 월드·시리즈에서 6차전까지 2승을 올렸다. 【方錫晌기자】

예배에의 초대
주일오후 2:00시 (한국어·영어)
개혁장노교회
(문의 492-9889)
1355 Warden Ave, Scarboro (Elsmere 와 Lawrence 사이)
THE WORD OF GOD-INCARNATE
THE FAITH OF 16C-REFORMERS
하나님의 말씀·개혁자들의 신앙

유머·환상으로 非理에 저항

노벨文學賞 수상자 가브리엘·마르케스

"소설은 社會·政治의식 필요"

南美대륙의 고통·갈등 묘사

「百年間의 孤獨」32個國語로 5백만권 팔려

가브리엘·가르시아·마르케스는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낯이 익은 작가다. 수상작으로 확인 대표작「百年間의 孤獨」은 우리나라에서 두세번 번역돼 나와 많은사람들에게 읽혀졌다. 그의「百年間의 孤獨」은 32개국 언어로 번역돼 총5백만권이 팔려나간 세계적인 소설이다. 이소설은 67년 初版이 나온후 지금까지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으로 꼽히고 있다. 『일단 손에 잡으면 끝까지 읽지 않고는 놓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있는 이 작품은 奇想天外한 사건들을 소재로 한다. 바나나를 독점재배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프루츠회사가 中南美에서 무슨짓을 하고 있는가를 폭로, 가난한대륙 라틴 아메리카가 숙명처럼안고 있는 비극과 희극을 보여 주었다.

그밖의 소설「不吉한時間」「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는다」「위대한 어머니의 장례식」「族長의 가을」등도 그 특유의「魔言 文學」성격을 지니고있다. 그의 소설경향은 이처럼 사회질서와 정의를 구하고, 지배자와 強者의 非理에 저항하는 소재로 일관하면서도 유머감각과 환상적인 무드를 잃지않았다. 이때문에 스웨덴 한림원은마르케스의 수상결정을 발표하며『南美대륙의 삶의 고통과 갈등을 여실히 반영한 투명한 이야기, 현실과 괜더지가 풍요하게 얽힌 構造美, 그리고 南美역사의 秘話를 서사시로 변모시켜 다시 전하는 소설가적 재질』을 추켜 세웠다.

그는 1928년 北콜럼비아의 작은마을 아라카타카에서 태어났다. 아라카타카 마을은 남회귀선이 걸치는산들과 카리브海사이에 있는조용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마르케스는 괴팍한 성질과 억센고집으로 부모를 괴롭히고 속썩이는 유년시절을보냈다. 집안 식구들과 어울리지못한 그는 어린나이에 집을 뛰쳐나와 일찍부터 고된 삶을 시작했다. 빵을 얻기위해 온갖 날품팔이, 하급 점원, 싸구려 물건 행상꾼등의 거친 일을 도맡아가며 하고 군인으로서 전선에 나가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험하고 치열한 가지가지 편력은 문학가로서 변신한 그에게 무진장의「이야기 거리」로서 사용된다. 55년 첫작품으로쓴「落葉」은 바로 그자신이 살아온 고통스러운 삶의 한 파편들을쓴 소설로 콜롬비아 문단을 놀라게한 力作이었다. 한 평론가는 마르케스의 이데뷔작품을 다른 모든 작품앞에 놓고『콜롬비아문단이 수십년만에 거둬들인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그후 두번째 작품「不吉한 時間」으로 文學賞을 수상해 작가로서의 뚜렷한 기반을다졌다. 작가가 되면서 수도보고타에서 간행되는 신문「엘에스펙타도르」(「觀客」의 뜻이 있음)에서 기자로 일하며 주로 폭로기사를 취재 발표했다. 그가 기자로일하며 쓴 기사중, 당시 집권자였던 구스타브·삐니야장군정권과 관계된 구축함 밀수사건 폭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었다.

마르케스는 이 기사를 쓴 덕분에 국외 추방 명령을 받아 멕시코로 건너갔다. 신문기자로서 일하며 만난 사건들은 여전히 그의 작품의 경향을「不義의 폭로」로 몰고 갔다. 「百年間의 고독」에서 바나나 독점 판매 회사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다 무참하게 깨지는 이야기도 그 같은 신문기자 생활서 얻은 소재였다.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는다」는 잊혀져버린한 군인이 옛날에 사라져버린 英雄主義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 비굴하도록 권위를 지키는 모습을그린 소설로「권력의속성을 희극적으로묘사하고 있다.

그는 私席에서나 公席에서나『소설은 언제나 사회의식,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해『정치소설가』라는 수식어를 받았다.

그의 이같은 소설의 정치의식경향은 다른많은 작가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기도 해『그의 소설의 정치의식은 카스트로에대한 지지』를의미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는 자주 쿠바로 건너가 쿠바인들과 만나기도했다.

그는『내가 시도한 본래의 또는 단순한 정치소설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정치·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에서 그 지역이 안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점들을집어내서 바르게 의식하게하는데 있다』고 말해 자기 견해의 왜곡된 부분을 시정했다.

그는 자신의 소설과 기타 남미작가들의 정치성향의 소설이 그릇되게 이해되는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정부상태로 극도의 혼란으로빠졌던 당시의 콜롬비아를숨막혀했다.

그는다시 파리로 떠나오랫동안 파리의 자유스러운분위기속에서 살다가 스페인의바로셀로나 한두에서 은둔생활을하고 최근 멕시코로 돌아와 집필생활에 전념하고 있다. 【高桂淑기자】

◇82년도 노벨문학상수상자로 결정된 콜롬비아작가 가브리엘·가르시아·마르케스씨가 21일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질문에 만족스런 모습으로 답하고 있다. 【멕시코시티AP=聯合】

노벨賞 어떻게 수여되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뽑는 스웨덴 한림원의 문학분과위원회는 평균 70세의 한림원 회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에는 20년동안 이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있다. 반백의 온화한 이노신사들은 수명의 수상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며 한림원 회원이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문학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연초부터 수백권의 작품을 원어로 읽는다. 원어로 읽을수 없을때는 같은 작품의 번역본을 여러권 구해서 함께 읽는다.

문학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異論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작업으로 선정해도 언제나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노벨은 또 문학상이『이상적 경향을 표현한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영어로 번역될수 있는 작품에 수상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았다.

이 조건에 따라 노벨문학상은 초기에는 이상적 철학을 내용으로 담은 작품에 수여했다. 이때문에 레오·톨스토이같은 대문호도 그내용이 비관적이라는 이유로 수상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작품의 순수한 문학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작가보다는 이미 문학적 업적을 쌓아 놓은 작가에게 수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톡홀름로이터=聯合】

내가만난 마르케스

孫觀秀〈外大교수〉

강인한 巨軀의 好人型

불교 輪廻思想에 심취

내가 마르케스를 처음만난것은 75년 美오클라호마대학에서 중남미문학박사과정을 밟고 있을때였다. 이 대학에서 발행하는 「북스 어브로드」(Books Abroad)는 매년 세계작가들중 하나를 선정,「노이스타트」(Neu-stadt)문학상을 수상한다. 75년의 수상자가 바로 마르케스였다. 노이스타드문학상은노벨문학상다음으로 평가를 받는 상으로 베케트, 퐁제, 호르헤·루이스·보르헤스등 세계적작가들이 많은 상이다. 이상을 받게되면 수상작품 추천 심포지엄을 여는데 마르케스도 오클라호마대학에 초청되어서 10월13일부터 20일까지「마르케스의 문학세계」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그의 대표작「백년의고독」을 읽었던 나는 마르케스가 파리하고 창백한 나약한 모습의 소설가로 생각했으나 실제만나본 그는 고수머리에 털수룩한 텁석염 그리고 거구에다가 호탕한 너털 웃음을웃는 호인형이었다.

그는 심포지엄동안 일관성 있게『西歐문명은 이미 晩秋에 이르렀고 西歐에 관한 주제는 너무 울궈 먹었기때문에 이제는 東洋에 눈을 돌려야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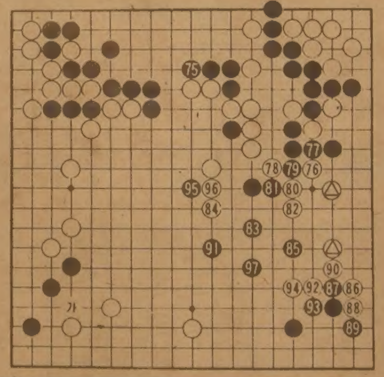
나에게 인상깊었던 것은 그가 佛敎의 윤회사상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는점이었다. 그는 이런 윤회사상속에서 인간의 구원은 계속주어지며 핵전쟁등 현대서구문명에 인간이 살아남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선택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局 第5譜 70~97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盧永夏
黑(6段) 張秀英

白, 긁어 부스럼



黑75로서 상변에 30여집이 확보되자 盧7단은『너무큰데』하며 白76에 붙여다보고 78에서 80으로 젖혔다.

白78까지의 白일단도 살은 미생이지만 아있지만 그것보다 잡차 우변의 白표들이 곤마로 시달릴까 보아 뭐가 수단을 부릴 생각이었을까. 국후에도 말이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긁어부스럼이란 출혈이다.

趙南哲8단도『이곳은 黑이 선착해도 당장 뾰족한 수가없다. 따라서 손을대지말고 좌하귀의 黑을 白「가」쪽에서부터 위협할 시기』라고 해설했다.

黑83까지의 결과는『뜻과달리 白이얇은마을 자초한 격이라는 얘기다.

盧7단은 白84로 두면서『할수없군』하고 뇌더니 黑85때 비로소 白86이하 90으로 우선 우변을 안정시켜놓았다.

白84로 부리를 내민데서 중앙 黑에 박력을 가할요량이다. 그노골적인 표시가 다름아닌 白92 94다. 그렇지만 이미 黑91의 절호점이 두어진뒤이고 또 黑95가 급소에 놓인뒤이어서 과연 白의뜻대로 될는지 의문이다.

곁으로 태연하게 미소짓으며『설마 가운데 白대마를 잡자는건 아니겠지?』하고 盧7단. 張6단은『모든 주로…』라말을 꿀꺽 삼키고 黑95 97 재로 자신의 진용을 정비해 누었다. 여기서 盧7단은 우하귀쪽을 엿보기로 한다. 【一凡】

엔 맘잡은줄알았는데』 『말 잡은게 뭐니? 근래에 왼손줄 착가하고있는거야. 현대는 너무 투기도 매아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48>

안개속의 집⑮

하연이 자신있게 말하자 좌중이 잠깐 어색해졌다.

『설마』

『아냐, 하연이 말이 맞을 것도 같아. 아유 징그러워 그 놈의 남자들.』

『왜 좋은 놈이니? 정떨어지면 네남편 정이나 떨어지지』

『얘, 넌 네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데도 빈말로라도 남편 흉 한번을 안 보고 사사건건 어쩌면 그렇게 잘 싸고도니?』

『바람 피운 것만큼 저자식은 끔찍히 위하니까』

『아이고 저 둥신대매, 내가 못살아. 얘들아, 오늘 우리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우리 여성들의 권익과 자존심을 위해서 저 현모양처지 둥신인지를 성토하지』

『왜? 재 남편 아직도 그 버릇 못고쳤대니? 요즈음 아주 기차전수 하나 났었단다』

『기차 전수? 그럼 처녀 아니면 유부녀?』

『아냐, 즈이집 식모를 건드렸대지 뭐니?』

『얘는 저만알고있으랬더니, 입도 싸』

남편이 바람둥이로 소문난 경아는 약간 답답해보이는 미모의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수다스러운 친구를 꼬집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언짢은 눈치는 아니었다.

『아유 불쾌해. 난 생각만 해도 남의더러운 속옷입은 것처럼 께적지근한데 넌어쩜 그렇게 태평이니? 속도 없어. 자존심도 없나구?』

『얜 괜히 흥분하고 야단이야. 난 이번에 식모전수는 식모한테는 참 안됐지만 우리 그이가 저지른 일중에 서 가장 이해가 가더라』

『뭐 이해가 가더라구? 너 지금 칠거지악시대에 살고

…허이다. 너 루기못해서 그런일 당하는지도 몰라』

『아냐. 그런게 아니라,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던』

『뭐 너도? 그러니까 너도 바람을 피운 일이 있다 이거지?』

그 방면의 쩔쩔한 화제엔 관심도 없이 먹는데만 열중하던 패거리까지 일제히 경아를 주시하며 눈을빛냈다.

『아냐, 큰일 날 소리. 그렇지만 건강하고 더러운만 노총각한테 꼭 첫사랑때처럼 울렁대는 마음을 맹목으로 끓린적이 있어』

『그게 어쨌데? 상대는 누구고?』

숨가쁜 질문이 쏟아졌다.

『근래의 일이야. 올 가을에 집 수리할 때였으니까. 이 나이에 그럴수있었단는 게 너무 신기하지? 상대는 그때의 일꾼이었어. 미장이 밑에서 데모도노릇하는 젊은이었는데…』

『어머머, 저 요조숙녀 속에 그런 화냥끼가 숨어있어다니, 놀라라. 그래 그 젊은이가 그렇게 매력있디?』

『느이들은 그 매력 설명해도 아마 모를거야. 건강하고 소박하고 힘 세고 우직하고 내세나는 더러운 거, 그게 그렇게 사람을 끌더라구』

『망할 것. 그래서 네쪽에서 꼬리를 쳤겠구나. 가엾은 젊은이!』

『아냐, 처음부터 끝까지 프라토닉으로 일관했어. 맹세코. 내가 마음으로라도 꿈은 불순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그 젊은이의 손톱이 더럽고 마디가 굵은 손을 때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였는데 그것조차 참은걸. 매일매일 그러고 싶어 가슴을 졸이면서도 차마 못해봤어』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가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 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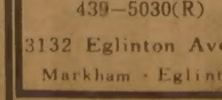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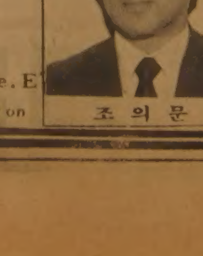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월리암

사무실시간(월~금) 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교또 레스트랑

● 사시미 ● 생선초밥 ● 덴뿌라

● 수~토 : 5:30PM~11:00PM
일 5:30P.M.~10:00P.M.
● 월, 화 CLOSED

5304 YONGE ST. (at FINCH) 221-1621

KOTO JAPANESE RESTAURANT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돼지波動」 또 온다

3년만에… 養豚農家늘어 값 계속暴落

정확한 統計없고 계획 不在

지난79년 가을 전국의 양돈가(養豚家)를 울렸던「돼지파동」이3년만에 다시 나타날 조짐이다. 79년의 돼지파동은 사료값에비해 돼지고기값이 엄청나게싸 洪城같은 지방에서는 돼지새끼를 죽여버리는가하면 어미 돼지(母豚)도살령까지 내렸던 것으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2~3월에는 또한차례 불어닥칠 것이 예상된다. 이같은 돼지파동의 우려는 농수산부가 전국의 정확한돼지숫자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을뿐 아니라경기전망마저예측하지못하고있어 생기고 있는것. 이에대해 농민들은 농작물의 경우 한해흉년이면 값이 뛰어 소득이 오르고 따라서 이듬해 많은농가가 경작하면 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겨 이를 막기위해 농수산부가 정확한 통계와 경기분석을 하고있는것처럼축산물에 대해서도 농가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방책을 강구해주어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으고있다. 돼지 파동이 예상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돼지가 많아져 값이계속 폭락하고 있기때문이다.

22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돼지사육마리수는 2백38만마리로 당국이 적정선으로 보고있는 2백30만마리보다 8만마리나 많고 더우기 어미돼지는 39만4천마리나돼 앞으로 계속 새끼를 날경우 내년3월께에는 2백60만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지난연초 돼지값이 강세를 보이자 전국의 농가및 양돈기업에서 돼지사육을 늘리기시작한것을 계기로 지난 4·5월부터는 돼지값이 떨어지기 시작,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양돈의 30%를 차지하고있는 경기도의경우 축산물 도매시장의 지육경락가가 지난5월초 kg당2천9백50원에서 10월초에는 2천2백88원으로 무려 6백62원이 떨어졌다.

경기도내의 돼지수는 67만마리로 지난6월말에비해 9만6백여마리가 늘었고 지난해6월말보다는 17만6천2백여마리가 증가했다.

이같은 급격한 증가로 지난3월말까지만해도 적정수준인 1천7백원선을 유지하던 생체kg당가격은 그후 점차 하락세를보여 22일현재 1천4백원대를 밑돌고있는 실정이다.

영남지방에서도 지난 5월 생체kg당 2천1백원하던것이 최근엔 1천5백20원까지 하락, 손익분기점에 머물고 있는데 이대로갈경우 내년초에가면 가격하락이 예상돼, 도당국은 4만8천여마리의 어미돼지중에서 8천마리를 감축키로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농수산부의 한관계자는 돼지값이 폭락·폭등의 악순환을 계속하고있는것은 정확한 통계가없어 계획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관계자는 돼지사육 통계조사는 그동안 6월·12월 연2회 실시해오다 지난79년파동이후 3·6·9·12월등 연4회로 늘렸으나 수급조절의 실효를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며 적어도 2개월에 한번씩은 조사,발표해 농민들이 참고토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부는 특히 요즈음 양돈이 문제된것은 지난79년 파동이후 전국의 사육돼지수가 적정선을 하회, 돼지값이 생산비를 훨씬웃돌자 양돈농가가 대폭늘어난데다 양계업계의 장기불황으로 양계업자들이 계사를 돈사로개조, 돼지사육을 대폭늘리고 비육용을 번식용으로 입식시키는가하면 기존양돈농가까지 사육규모를 무턱대고 확장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계자들은 돼지파동을 막기위해서는 현재 39만4천마리나되는 어미돼지를 34만5천마리정도로 줄일수있는 대책을 세우고 수입쇠고기값을 인상하는대신 돼지고기값을 내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돼지고기요리법과 가공식품을 개발, 개선해야하며 또 이를 통한 전천후식품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盧基昌기자】

◇養豚농가에 주름살 — 올들어 돼지사육이 부쩍 늘어 값이 떨어지기시작, 3년만에 또다시「돼지파동」조짐을 보이고있다.

되돌아온 金日成승용차 北傀야욕상징으로 展示

6·25때 후퇴하며 버리고 달아난것
스탈린의 膳物…우선 地方 순회부터

6·25당시 북괴 金日成이 타고다니며 북괴군을 부추기던 48년형 소련제「지스」승용차가 22일 상오 미국으로부터 釜山항에 되돌아왔다. 이 승용차는 汝矣島종합안보전시장에 채잠돼 일반에게 북괴의 야욕을 상기시키는 반공교육용으로 전시된다』

이 승용차는 6·25때 金日成이 平壤에서 倭館까지 타고내려와 洛東江전투를 진두지휘하다 UN군의 仁川상륙작전이 성공하자 후퇴하면서 淸川江변에 버리고 달아났다. 이것을 육군제6사단이 노획하여 당시 연대장 成炳鎬씨가 서울까지 끌고와 李承晩대통령에 헌납했었다.

전쟁중이라 이 승용차는 관심을 못끌다가 한국전서 전사한 미8군사령관 월턴·워커장군의 미망인에게 위로의 선물로 기증됐다.

고향조지아에서 1951년7월 이 차를 인수한 워커장군의 미망인은 이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자 『남편의 생명의 대가가 이 차인가』란 착찹한생각이 들어 6백달러짜리 미제승용차와 바꿔버렸다는것.

이 차는 그후 金日成의 승용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동차수집가의 손을 거치다 마지막 수집자 프레드·더칸씨손에 넘어갔다.

지난 78년11월 유엔한국참전국협회가 매입을 교섭할때는 희귀차종인데다 金日成이 탔던탓으로 12만달러를 호가했다. 그러나 한국군이 노획한점을 감안, 값을 7만5천달러로하는데 성공했으나 자금이없어 미루어오다 주식회사 大宇의 협찬으로 이번에 사들여오게 됐다. 더칸씨는 그동안 캐나다거주 한국인등 3명으로부터 9만달러매입요청을 받았으나 한국인들이 뼈아프게 기억해야할「역사적기념물」임을 감안, 기다렸다고 말하고있다.

이 7인승 리무진은 8기통 차체의 길이가 5.87m, 무게 2천6백15kg으로 문은 4개이고 물론 현재도 주행이 가능하다. 총 주행거리는 2만5천6백km밖에 안된다. 미국 고전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2만대중 소련제「지스」로는 유일하다. 노획당시 색깔은 검정색이었으나 빨간색으로 재도장되었다가 최종소유자 더칸씨가 국방색으로 바꿨다.

이 차는 지난 48년 스탈린이 金日成에게 선물로 준 것인데 바닥에는 카펫트가 깔려있고 모든 문도 자동이며 타이어를 제외하고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승용차가 부두에 양륙되어 시동을 걸자 요란한 엔진소리를 냈으며, 사이렌도「왱」하며 작동됐다. 이 자동차는 25일부터 11월중순까지 지방을 순회하며 일반공개된다.

◇32년만에 미국에서 釜山항에 돌아온 북괴 金日成의 소련제 Z·I·S승용차. 차령34년인 이차는 타이어를 제외한 차체가 원형그대로 보존돼 있다.

두꺼비 안의섭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웅담 40개 美서 密輸入

치안본부, 在美교포등 셋拘束

치안본부 외사수사대는 22일 재미교포 宋基龍씨(50·美미시간州니보니아市)와 宋씨의 외삼촌 吳世熙씨(61·서울道峰區水踰2洞253의42)를 외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암달러상 申順姬씨(54·서울中區冊橋洞82)와 白周炫씨(53·江南區論峴洞62의19)를 관세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宋씨는 지난13일 입국하면서 미국에서 구입한 웅담40개(싯가 3천2백만원)를 가방에 숨겨들여온뒤 이중 4개를 지난 18일 白씨에게 6백40만원을받고 팔아 넘겼다는것.

宋씨는 또 밀수입한 웅담5개를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나머지 31개를 외삼촌 吳씨에게 처분토록한다음 東大門시장 암달러상 申씨에게 미화 8천5백달러를바꾸어 지난 20일 KAL편으로 출국하려다 金浦공항에서 검거됐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아이들만 잠자다 불 長男 숨지고 둘火傷

【釜山】22일새벽1시께 부산北區鶴章洞579의2 이대희씨집(53)집에 세든 양식씨(43)의 방에서 불이나 양씨의장남 석주군(13·학장국교6년)이 불에타 숨지고 장녀 은정양(11) 차녀 윤정양(9)과 옆방에사는 金정태씨(58)등 3명이 화상을입고백병원에 입원중이나중태이다.【聯】

政府비방 油印物 摘用 국가모독죄 1年刑 선고

서울형사지법 魯元旭판사는 22일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 상임총무 金喆基피고인(26·仁川市山谷洞137)에게 국가모독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金피고인은 지난 7월23일하오4시께 서울鍾路區蓮池洞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사무실에서 日本共同통신 기자등 내·외신기자 10여명을초청,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콘트롤데이터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유인물3백장을 나눠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검찰은 기소당시 외국인을 이용하여 국내인이 국가기관인 정부당국을 비방하여 대한민국의 위신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실종자1명 못찾아 불탄 트롤船풍양호

【코디악(美알래스카州)UPI=聯】미해안경비대소속 경비선이 20일하오 알래스카灣에서 고기잡이를 하던중 선체에 화재가 발생, 표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트롤어선 풍양호(3천5백27톤·고려원양소속)를 곧 찾아낼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美해안경비대대변인이 21일 밝혔다.

태리·해슬대변인은 화재발생당시 풍양호를 탈출한선원90명중 89명은 한국어선개양호에 의해 무사히 구출됐으나 실종된 1명은 공중수색활동을 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해안경비대는 앞서 풍양호로부터 선상에서 화재가발생,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있으며 구조를 요청한다는 무전을 받은데 이어 20분후 불길을 잡을수 없기때문에 배를 포기한다는 무전을 접수했었다.

官給飼料 빼돌려

畜協직원이 두달간 182가마

【光州】光州지검수사과는 22일 조합원의 인장을 위조, 관급사료를 빼돌려 상인에게 팔아먹은 전남 長城郡축협 사료담당직원 李基相씨(24·長城郡 長城邑 鈴泉里)를 사문서 위조 동행사 업무상 횡령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李씨는 지난 7월3일부터 9월15일까지 사이에 조합원38명의 도장을 위조, 이들에게 맥강등 관급사료 1백82가마를 가마당2천5백80원씩에 공급한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후 長城邑 S사료상회주인 吳모씨(40)등에게 가마당 3천원~6천원씩 받고 판매, 차액 49만6천8백원을 착복했으며, 지난 5월15일부터 6월20일 사이에도 조합원들에게 판매한 관급사료 4백6부대 값 1백4만7천4백80원을 축협에 입금시키지 않고 가로챘다는 것이다.【聯】

惡臭내뿜은 공장서 복지시설 제공키로

【蔚山】화공약품 저장탱크에서 악취를 내뿜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입혀온 蔚山탱크터미널(대표 尹世榮)이 蔚山市長生浦洞 內海마을주민들에게 보상금조로 우선5백만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해마다2백만원정도의 마을복지시설을 갖추어 주기로 21일 주민들과 합의했다.

內海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인근 蔚山탱크터미널은 지난 80년10월부터 폭발성 위험물질인 키실렌, 벤젠, 빙초산등으로 탱크 29개(총저장량 2만7천4백kl)에 보관해 평소 마늘썩는 냄새같은 악취를 풍겨왔었다.【聯】

택시운전사들 敎育 光州등3市 3천명

【光州】전남도는 21일 光州 木浦 麗水시 택시운전기사 3천2백16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오는84년까지 새마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 친절하고 예의바른 운전기사상을 정립키위해 3개시의 모범운전기사 5백28명, 일반운전기사 2천6백45명, 여자운전기사 43명등을대상으로 올해6백명, 83년에 9백명, 84년에 1천7백16명씩 연차적으로 새마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5行뉴스

◆班常會 날짜 住民자율로 — 내무부는 22일 매월21일로 고정돼있는 반상회를 지역사정에따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했다.

國公立병원發給 허위診斷書로 개인택시 불법轉賣

【釜山】부산西部경찰서는 22일 브로커와 짜고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허위건강진단서를 첨부해 개인택시를 전매해온 姜德基씨(51·부산釜山鎭區楊亭1洞505) 鄭在鳳씨(40·부산南區民樂洞17)등 개인택시차주 7명을 공문서위조및 동행사혐의로, 자동차매매 브로커인 韓甲錫씨(47·부산東萊區釜谷1洞889)등 2명을 도로운송차량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택시 차주인 姜씨등 9명은 지난7월22일께 같은혐의로 구속중인 브로커 金鍾鶴씨를 통해 前부산대학병원 병리기사 徐봉섭씨(38)에게 1백20만원에서 2백50만원까지의 사례비를주고 1년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엉터리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근거로 브로커 韓씨등을 통해 개인택시를 대당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전매해온 혐의이다.

개인택시를 전매하려면 면허특자가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국공립병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다.【聯】

公判정지신청 李圭光피고인

李哲熙·張玲子사건과관련 구속중인 李圭光피고인(57)에대한「공판절차정지신청」이 22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제2형사부(재판장 朴萬浩)에 접수됐다.

李피고인은 신병악화로 서울구치소측의 출정거부에 따라 지난11일과 18일의 항소심 1·2회 공판에 모두 출정치 못했었다.

監理敎 신학대 교수16명 辭表

學生소요사태 관련

감리교 신학대학(학장 朴奉培)교수16명 전원이 최근 학생들의 교내소요사태와 관련,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朴학장은 교수들의 사표와 함께 자신의 사표도 이날 재단이사장 洪顯卨목사에게 제출했다.

감리교신학대생들은 지난달 2학기개강과함께 1학기학사징계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 교내시위를벌여 관련학생2명이 제적되자, 이들에대한 처벌도 백지화할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해왔는데 학생들은 2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중간고사도 거부하고있다.

宜寧사건 警官3명 釜山地法 抗訴기각

【釜山】宜寧郡宮柳面 경찰관 총기난동사건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가 기각돼 징역10월에서 1년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尹永五부장판사)심리로 22일 상오10시 부산지법 1호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피고인들은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禹순경의 난동사실을 신고받고 출동, 禹순경이 자폭할때까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못해 엄청난 피해를 낸것은 직무유기가 명백하다」고판시, 항소를 기각했다.

전宜寧경찰서장 崔在潤피고인(57·前경정)과 전宮柳지서장 許昌順(44·前경사)전宮柳지서차석 金鎭宇피고인(35·前순경)등 3명은 지난7월26일 부산지법 晉州지원에서의 1심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죄로 崔피고인은 징역10월, 許·金두피고인은 징역1년씩을 각각 선고받았었다.【聯】

4개法院移轉 87년까지 江南에

大法院등은 남아

대법원은 서울고법과 서울민·형사지법, 가정법원등 4개법원을 오는87년까지 江南지역으로 이전키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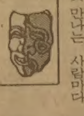
대법원이 22일 국회에 낸 법원청사신축 5개년계획에 따르면 서울江南區瑞草洞산185일대의 부지3만2천9백71평을 매입한뒤 85년부터 87년까지 3년동안 연차적으로 총2백40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평2만평규모의 새청사를 신축한다는것.

그러나 새청사가 완공되더라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현재의 西小門洞 청사에 그대로 남게된다.

두얼굴의 女子

「미스·보디빌딩」챔피언 崔明淑양

한때 뚱순이…"白眼視이유 모르겠다"



얼마전 서울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미스 프로 챔피언대회(보디빌딩)에서 우승한 崔明淑양(24·사진)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깨가 떡벌어지고 근육이 울퉁불퉁한「남성형」근육질 女人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갔다. 만나고보니 키 1m64cm에 35·24·35의 날씬한 몸매를 가진 쾌활한 멋장이 아가씨였다. 의심스러워『아가씨가 진짜 崔明淑양이냐』고 물으니『그런데요』하며 의아스런 시선으로『질문』의 의도를 캐묻는다.

『이런 아가씨가…』하는 기자의 마음을 눈치챈듯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표정을 하고, 그래서『두얼굴의 여자』와『야누스』란 별명을 얻었다고 폭소를 터뜨려놓아 버린다.

崔양은 이번챔피언대회에서 수영복차림으로 울퉁불퉁한 근육을 과시, 지난5월의 미스골든 보디대회에 이어 우리나라 여성체미의 제1인자임을 확인했다. 그녀의 근육미는 외국에서도 알아준다. 지난달 18일 東京에서 열린 아시아보디빌딩대회에서 입상한바있다.

이러한 崔양도 한때는 뚱순이었다. 仁川 永花여자실업전문학교 관광과를 나와 관광안내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불고기집을 경영하는 홀어머니를 도왔다. 불고기를 자주 먹어서인지 체중이 62kg으로 불어나 숨이 가빠지고 소화불량에 신경통까지 겹쳤다.

79년 살을 빼기위해 체육관을 찾았다. 체육관을 나가려고 한다니 어머니를 비롯, 주위에서『시집 다갔다』느니『계집애가 50kg짜리 역기를 든다니 말이 되느냐』며 한사코 반대했다. 체육관측도 처음엔『2백명이나 되는 남자들 틈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며 은근히 반대했었다.

하루하루 살이 빠지고 근육이 나오는게 신이났다. 식사도 칼로리가 적고 단백질이 많은 콩·생선등을 많이 먹었다. 검붉은 살결을 갖기위해 집 옥상에 칸막이를 하고 매일 일광욕도 했다. 건강미가 넘쳐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근육때문에 여자다움을 잃어버릴까두려워 의식적으로 스커트를 자주입었다. 그래도 사회의 호기심을 떨쳐버리기는 어려웠다는 고백.

『女性의 보디빌딩운동은 동양의 미덕인 순종과 인내심이 길러지는 운동이야요. 왜 백안시하는지 모르겠어요』【金宗來기자】

MAGNAVOX
MAGNAVOX by Philips
COMPUTER COLOUR 330
26" (63 cm) Colour Consoles with Touch-Tuning and Remote Control, available in 2 elegant cabinet styles Models 5046/5048
Standard features: Cable ready • LED channel indicator • 16 button infrared remote control • Random touch-tuning • Automatic fine tuning • Voice/music control • Videomatic

$899- TABLE-TOP VCR Model 8318
$699- TABLE-TOP VCR Model 8306

WEST지점
전광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정운, 전병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당신이 결정합니다

NOV 8TH

시 선 거 일
11월8일 월요일

투표증명및 신고

토론토시 투표자격자중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

투표증명을 얻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4시30분까지, 또는 10월30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3시사이 시청의 계원에게 신청함으로써.

또는

선거일전에 일정한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한다. 이때 증명서를 보여야 한다.

시민권을 받거나, 1982년10월21일 이후 선거투표권이 있는자는투표용 명서를 받거나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시민권을 제시해야 한다.

투 표 자 격

당신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때 토론토시에 투표자격이 있다.

당신이 캐나다시민이거나 영국국민일때 : 11월8일이전에 18세 또는 이상일때 :

● 1982년 9월7일부터 10월20일사이 토론토시에 살았거나,

● 당신 또는 배우자가 거주는 안했으나, 토론토시 대지주인 이거나 차주인 경우.

1982년 10월25일

Roy V. Henderson
City Clerk and
Returning Officer.

CITY OF TORONTO

메아리

蜚

流言이라고 한다。蜚語라고도 한다。합쳐서 流言蜚語—。뜻은 모두 터무니없는말, 헛소문·뜬소문이다。

流言은 「흐르는 말」이니까, 글자풀이만으로 뜻이 짐작된다。流語·流說、浮言·浮語·浮說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蜚語는 무엇일까。

字典을 찾아 보니, 우리말 새김은 떡풍뎅이、그 첫번 풀이가 바퀴다。냄새가 나는 벌레(臭蟲)란 풀이가 나와있고、蜚蠊=바퀴벌레란 쓰임이 제시되어 있다。

옳거니、蜚語란 「냄새 나는 말」이로구나 싶기도 했지만、뜻풀이 맨끝에 蜚는 飛에 통한다고 나와 있다。蜚語는 곧 飛語、허공을 「날아 다니는 말」인 것이다。飛言·飛說이 모두 같다。流言蜚語라 합쳐 써서、물처럼 흐르고、근거없이 떠 도는 말이란 풀이가 되겠다。그것이 원래 뜻일게다。

그러나 아무리 蜚와 飛의 발음이 같다고 해도 飛語를 蜚語라 할 때는、蜚의 첫번뜻—바퀴와 무관하지는 않을것 같다。流言蜚語란 것이、흉물스런 바퀴벌레의 생태를닮았다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벌레지만, 바퀴가 地球위에 나타난지는 4억년쯤이나 될것이라고 한다。그것이 지금껏 형태의 큰변화없이 이어져왔으니、대단한 생명력이다。

바퀴의 종류는 전세계에 약2천종이 살고、우리나라에서는 9종이 발견되고 있다。그중 4종이 집안에산다。우리가 알고 있는 바퀴란 이놈들이다。

보아서 아는대로、바퀴는 슬그머니 나타났다 쏜살같이달아난다。몸집이 납작하여 작은 틈새만 있어도 지나다닌다。언제나 어둡고 축축한 곳에살며 썩은 먹이를 좋아한다。좀 어렵게 풀면、바퀴의 생명력을 보장하는 그속성은 潛伏性·夜行性·群居性·雜食性·敏捷性등이다。

속성이 이러하므로、바퀴가 좋아하는 곳은 부엌이다。주거환경이 좋아질수록 바퀴는 더욱 번성한다。음식물을 더럽히고 피부병을 일으키며、병균을 옮기는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줄은 알지만、바퀴 없애기는 무척 어렵다。마땅한약이 없는데다、너무 독한약을 썼다가 사람이 다치는 수가 있음은 신문에서 보는대로다。아파트 같은데서는 어느 한집에 바퀴가 몰어들어오면、금새 온棟에 번지며、그리된 뒤에는 한집에서 아무리 애를써도、하수도를 타고 쏘다니는 바퀴를 없앨 길이 없다。

流言蜚語는 이같은 바퀴의 여러속성을 모두 지녔다。바퀴가 칩칩한 곳、축축한 곳、썩은 먹이가 많은 부엌을 좋아하듯、流言蜚語도 발붙이기 좋아하는 風土가있다。한번 발생한 뒤에는 그해악을 없애기가 어려운 것도 바퀴와 같다。

그러나 秘方이 없는 것은아니다。커뮤니케이션理論家들이 제시하는 그 방안은 두가지다。

하나는 적극적인 情報의 유통으로 流言蜚語를 中和하는 것이다。사람들은 情報의 水位가 떨어지면、그 공백을 流言蜚語로나마 메우는 속성이있다。진실된 情報의 유통만이 그런 틈을 없앤다。

다른 하나는 가만히 두고보는 것이다。流言蜚語는 사이클이 있어서 발생—전파—소멸을 거듭하기 때문에、때가 되면 저절로 사라진다。그것이 거짓말의 운명이다。

爲政者가 위의 두가지 方策중 어느쪽을 택할지는 자유다。그판단은 떠도는 말의내용에도 달린것이지만、엊그제 어떤교도소 재소자의 사망경위를 밝힌 법무부장관의 국회답변은 첫번째 대책을 쓴것이라 보아진다。현명한태도라 생각한다。

옛말에도、流言은 지혜로운 사람에 이르러 그친다(流言止於智者)고 했다。사리를판단하는 지혜가있는사람은 터무니 없는 말을 믿지 않기때문이다。이 경우、智는 知와 통한다。오히려「止於知者」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理論에 맞는다。진실을 아는사람은 헛소문에 놀라지도 속지도 않으며、옮기지도 않는다。

이 이치를 곰곰히 짚어가면、流言蜚語의 바퀴는 事後驅除아닌 事前豫防도 가능하다。바퀴가 싫은 사람、바퀴의 해독을 아는 사람 모두가 생각해볼 일이다。

金昌悅
<編輯委員>

따뜻한 人情

아빠는 느지막하게 다시 잡은 직장일에 더욱 충실하고자 하여 아침일찍 서둘러 출근하시기에 바쁘다。

여섯식구의 생계 유지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까 하여 가정주부로서 보험외무에 뛰어든 나 역시 아침 설것이를 마치자마자 숨가쁘게 가방을 챙겨들고 집을나서야만 한다。

또 현재 대학1학년에 재학중인큰녀석을 포함하여 네 아이들(2男2女)모두가 제가끔 앞을 다퉈 학교를 향해 집을 뛰쳐나가고 나면 집은 온종일 텅텅 비워두기가 일쑤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미안한 마음 그지없지만 전기나수도검침을위한 필요한「사용수치」를 대문밖에다 적어놓고 가기도 하는데、그러한 중에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일은 이따금씩 등기우편물이 찾아드는 경우이다。생각다 못하여 얼마전에는 우체부 아저씨에게 신신당부하여 우리가 믿을수있는 이웃집 아줌마앞으로 대신 전해달라고했다。그랬더니 양쪽분들이 하나같이 내일처럼잘협조해주어 이제는 그러한일에 부담과 불안은 전혀안느껴도 될수있게끔 되었다。

친절봉사를 성의껏 실천하신 담당우체부아저씨와인정어린 아줌마께 공손히머리숙여 거듭 감사의인사를 드린다。

【尹炳玉·城南市太平洞】

東亞砲火 釜山產大 맹폭

金漢兆홈런 둘…20安打 공략
7회까지 每回득점 珍記錄

전국大學野球선수권 개막

금년도 대학야구를 총결산하는 제37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가 22일 서울운동장에서 개막、東亞大는 7회까지 매회 득점의 진기록을 세우며 釜山產業大에 12—3으로 대승、2회전에 진출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이자 올해 3冠王인 東亞大는 이날 신생 釜山產業大를 맞아 4번 金漢兆의 대회 1·2호 연타석 홈런을 비롯、장단 20안타로 공략하는 한편 에이스 朴東洙대신 朴鎭旭과 吳命錄의 계투로 釜山產業大 타봉을 7안타 3실점으로 막았다。

仁荷大와 嶺南大 경기서는 吳泳日·李壽雄·金鎭雨등 국가대표를보유한 仁荷大가 2회초 4번 李壽雄의 좌전안타와 6번 崔光默·7번梁厚承의 연속2안타로 얻은 2점을 吳泳日의 호투로 끝까지 잘지키고 9회초 3번 金鎭雨의 승리를 굳히는 중월홈런으로 1점을 추가、3—0으로 완승했다。

1회말 1점을 선제당한 釜產大는 2회초 4번 周仁煥、5번 姜秀京의 연속안타등 4안타로 3점을 올려 3—1로 전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모두 1년생으로구성된 釜產大로서는 2점의리드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회말 1死후 8번 李東玩、9번 鄭壽球의 연속안타로 주자 2·3루의 찬스를잡은 東亞는 국가대표 1번 趙城玉이 2타점 안타로 3—3 동점을 만들고 다시 韓문연의 우전안타로 1점、3번 金相勳의 안타와 釜產大투수 辛在根의 폭투로 1점을 보태 5—3으로 앞섰다。

東亞는 매회득점을 기록했으며 7회말 대회1호 홈런(5회)을 때렸던 4번金漢兆의 솔로홈런으로 7회연속득점의 신기록을 세웠다。

東亞는 8회에도 2안타로 주자 1·2루의 찬스를 맞았으나 9번鄭壽球가 병살타를 치는 바람에 득점행렬은7회에 끝났다。

◇제1일1회전

부산산업대	030	000	000	—3
동아대	141	131	10×	—12

▲홈런=金漢兆(5회2점·7회·동아)

인하대	020	000	001	—3
영남대	000	000	000	—0

슈퍼·스타없는 슈퍼·스타즈
三美、KBO에 自救策 곧 건의

「전력평준화만이 프로야구가 살 길이다。三美의전력보강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

82년 프로야구 첫시즌꼴찌팀 三美는 할말이 많다。

슈퍼스타즈의 간판이 무색하다。내세울 스타 한명없다。팬들이 무엇을보려고 비싼 입장료를 내고 三美게임을 찾겠느냐。三美를살리고 프로야구를 살리기 위해서 전력평준화가이루어지지않으면 안된다。三美를 구하는 것이 곧 프로야구 6개구단 共生의길이라는것이 첫시즌을 마친 三美슈퍼스타즈의 주장이다。

三美는 83시즌을 준비하기위해 27일 열리는 한국야구위원회(KBO)실행위원회의에 구단사활을건 몇가지 건의안을 제출할방침이다。

그 첫번째가 6개구단설립의 기초를이루었던 지역연고제의 조정、또는 탄력운용이다。三美로서는 서울의 위성도시 仁川、春川을 연고지로한 자체가 선수스카웃과 관중동원면에서 큰 핸디캡을 안게 되는 것이다。

京畿、江原지방에는 유·무명、신진팀을 모두 합쳐 9개 고교팀이있다。仁川高 東山高를 제외하고는 거의 서울중앙무대에 오르지도못하는 팀들이다。또한 지역적으로 가까운 서울의 영향으로 유망선수나 프로게임을 즐길만한 관중들을 연고지역에 묶어놓수도 없는 실정이다。

三美는 현재 MBC와 OB가 2대1로 분할점유한 서울의 연고권을 三美에게도 할애해줄것을 요청하고있다。

三美의 두번째 요구사항은 仁川에 소재하고있으며 비교적 仁川출신선수가 많은 仁荷大學졸업선수에 대한 연고권이다。

내년 仁荷大졸업예정자중에는 仁川지역고교 출신이 아닌 투수 吳泳日(배명고)、내야수 李壽雄(선린상)등 우수선수들이 포함되어있다。三美는 다른구단과의 현격한 전력차를 메울 특별배려로 대학1개팀의 연고권을 바라고있다。

세번째는 다른구단이 필요로하지않는 연고선수에 대한 연고권이양이다。서울、大邱、釜山등의 넘쳐나는지역선수들을三美에게 양도해달라는것이다。『三美전사들아。부디이겨다오』仁川구장에 걸렸던 仁川팬들의 소망은 곧전국야구팬들의 공통된 희망이기도 하다。

「유료관중4백명」의 불명예를씻고 프로야구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KBO나 모든 구단들이 三美를비롯한 약팀들의 전력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같다。【方錫軸기자】

"지역緣故 탄력운용 戰力보강 길터줘야"

◇82년정규시즌유료관중

대 진	유료관중
MBC—三星	148,228명
MBC—해태	136,068〃
해태—三星	132,380〃
OB—三星	121,444〃
MBC—롯데	117,205〃
롯데—三星	114,546〃
MBC—OB	102,635〃
해태—롯데	88,548〃
해태—OB	86,447〃
三星—三美	84,198〃
OB—롯데	69,576〃
해태—三美	69,069〃
롯데—三美	60,130〃
OB—三美	52,688〃
MBC—三美	42,139〃

※매대진16게임씩

OB、會員에 선물

◆…82년 시즌 챔피언인 OB 베어스는 첫우승기념으로 전국 OB 베어스 어린인 팬·클럽 회원들에게 아기곰이 그려진 맥주컵모양의 연필꽂이를 선사키로 했다。

해태코치陣 日에

◆…해태 타이거즈는 23일부터 시작되는 日本시리즈를 관람하고 일본구단운영실태를 돌아보기위해 코칭스태프및 程己柱 구단이사를파견한다。柳南鎬코치는 23일 상오10시、程코치는 25일 상오10시、趙昌秀이사는 27일 출국한다。

오클랜드의 名監督 빌리·마틴 또解雇

【오클랜드 21日 UPI合同=特約】 美프로야구에 빌리·볼선풍을 일으키며 인기를 모으던 빌리·마틴(54)감독이 20일 오클랜드·어슬레틱스 감독직에서 쫓겨났다。

로이·아이젠하르트 오클랜드회장은 20일 85년까지 연봉 25만달러로 계약돼있던 빌리·마틴과 회담을 끝내고 그의 해고를 발표했다。

마틴은 81년 오클랜드를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으로 이끌었으며、금년시즌에는 관중 1백70만명을동원했으나 5위에 그쳤다。오클랜드는 빌리·마틴을 해고한 5번째 구단이다。

白仁鐵 3防戰

21연속KO승의 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주니어·미들급챔피언 白仁鐵(21)이 23일 하오 淸州실내체육관에서 동급10위인 日本의아라이·요히와 타이틀3차방어전을 벌인다。

OPBF주니어·웰터급 챔피언 金相賢(27)은 24일하오 釜山구덕체육관서 필리핀주니어 웰터급챔피언 루벤·라바고와 10라운드 논타이틀전을 갖는다。

核戰爭나도 人類멸망안해
텔러博士、放射能낙진 쉽게씻기어

核전쟁이 지구의 모든생명체의 종말을 가져오지는 않으며 核전쟁이 발생한다해도 희생자보다는 생존자가 더 많을것이라고『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의 에드워드·텔러 박사가 리더스·다이제스트 최신호에서 말했다。

헝가리출신 美 核물리학자인 텔러박사는 核전쟁으로 인한『지구종말論』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核폭탄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나 방사능낙진도 인체의 피부나 깡통、포장물 또는 다른물체의 표면으로부터 닦이거나 씻어져 제거될수 있다고말했다。【워싱턴=AP】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361

海外스포츠話題

勝戰소식전하고 숨진 전설의 아테네兵士
그는 어떤길을 달렸을까
海岸길 42km냐 산길 33km냐 그리스서 마라톤코스 論爭

마라톤故事의 진실을 캐려는 논쟁이 한창이다。

「진실」의 초점은『페이딥피데스가 어떤 길로 달렸느냐』는 것이다。

페이딥피데스는 BC490년 마라톤전투에서 희랍이 페르시아를 무찔렀다는 승전보를 아테네장터에 전하고 숨진 전설적 희랍병사。

25세기가 흐른 그의 인내와 애국심을 기념하는 마라톤경기가 전세계서 붐을 이루고있다。

그러나 요즘 그리스역사가들간에는 페이딥피데스가 달렸다는 코스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있다。

그 병사가 정말 지금 알려진대로 26마일(42·195㎞·현마라톤코스)의 기복이 심한 해안길을 달렸을까。

아니면 가파른 산길을 넘어 지름길로 아테네에도착했을까。많은 학자들은 그가 산길을 넘어왔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마라톤은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마라톤코스도 26마일이 아니라 21마일(33·6㎞)이 돼야한다。

지금 마라톤의 평원은 전투당시보다 많이 넓어졌다。

아테네병사들은 산을 넘어와 놀랍게도 병력이 훨씬 우세한 적을 사로잡고 바다로 몰아냈다。

1986년 아테네에서 첫근대올림픽이 개최되고 마라톤경주가 벌어졌을때 그리스는 페이딥피데스가 출발했을 것으로 믿어지는 지점을 찾아 마라톤출발지로 정했었다。

거기에는 조그만 기념비가세워져 올림픽의 상징이되었다。

이곳에서 산속을 헤치고 아테네에 이르는 길은 지금 지그재그로 닦인 훌륭한 차도로 변했다。멋진 드라이브 코스이다。

페이딥피데스가 이길을 달렸다면 전설대로 아테네에 메시지를 전한후 그대로 쓰러져 숨졌다는게 의심할바 없다。

그는 처음 3마일은 가파른 산을 넘어야 했을 것이며 전투가 벌어진 것은 8월말이 었으므로 찌는듯한 더위에 기진맥진했을 것으로 믿어지고있다。【兪爽根기자】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내고향통닭집

칼국수
오뎅 전문
통만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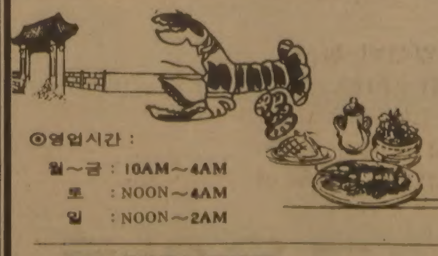
658½ BLOOR ST. W.
☎ : 537-0432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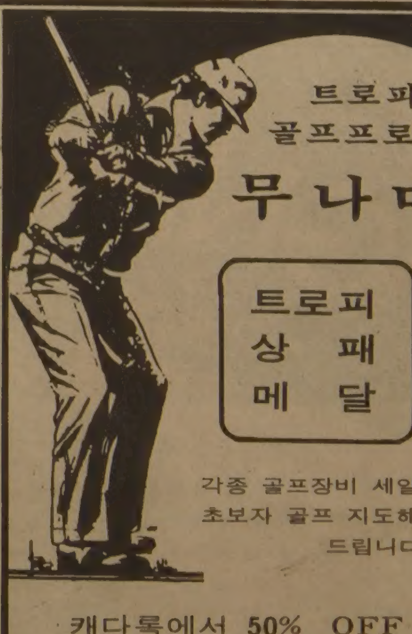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쉐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LEON'S
MCLEVIN
SHEPPARD
MARKHAM
HWY. 401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트로피
골프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 패
메 달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캐다록에서 50%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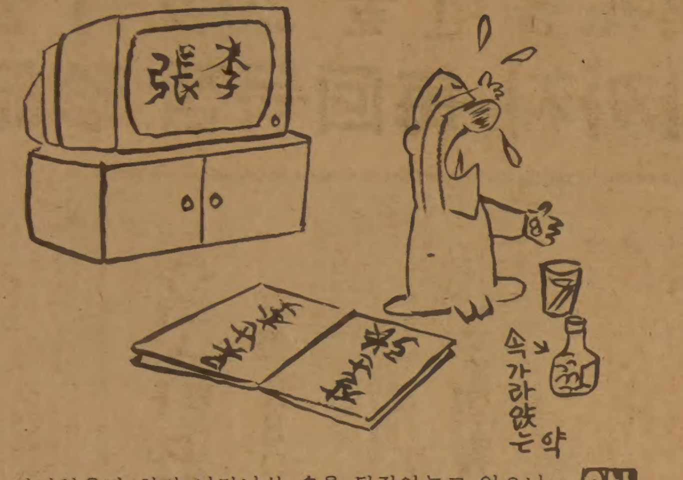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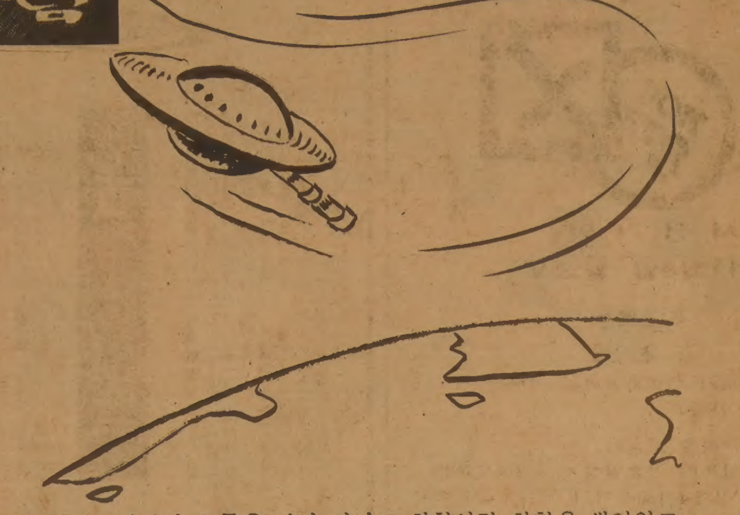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변 의 섭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칼럼



속이 가라앉을만 하면 나타나서 속을 뒤집어놓고 있으니…



저긴 어떻게된것이 교통은 말이 아니고 하천이란 하천은 썩어있고…

사건記者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기온 일교차가 심한 가을인데다 감정변화가 예민한 낙엽의 계절 탓일까—. 혈압 높은 노인이 매일 달리던 새벽 조깅 길에서 숨지고, 딸의 중학수업료를 못낸 가장이 자살을 했다. 모 회사 경비원은 목을 매 자살했고, 20대 청년은 폭발물을 터뜨려 자살을 기도했다. 오죽해서 자살을 할까마는, 생명에 대한 자기존엄 없이 남의 생명에 대한 존엄을 보장할수 없으므로 자살은 도덕적 타락이다. 용납될수 없는「자기살인」으로 이 가을이 음울해져선 안될것이다. 이번 「기자수첩」은 아파트단지에서 음식배달원을 뒤따라가 음식값을 가로채는 「뒤치기」숫법과 32살의 버스안내원교양주임 여성의 끔찍한 살인미수가 메모됐다.

32살 여성"교양주임" 이 끔찍한 殺人未遂

■대낮에 爆音

▲휴일이었던 10일낮 서울 용산구 관내에서 수백발의 폭음이 간헐적으로 울리는 바람에 놀란 시민들이 보도기관과 경찰에 문의전화를 거는 등 어리둥절.

이 폭음은 한국화약그룹이 이날 상오부터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계열회사 체육대회를 열면서 상오 9시에 축포 8발을 쏜것을 비롯, 하오 7시까지 모두 5백52발의 축포를 터뜨렸기 때문.

근처 주민들은 이 폭음으로 시끄러웠던 것은 눈깨치고 효창공원에서 거행됐던 李奉昌의사 추모행사가 빛을 잃었다고 못마땅해 하면서 예고없이 폭음을 터뜨려 놀라게 한 체육대회 주최측을 비난했다.

▲지난 9일 새벽 5시반께 서울마포구아현동산1 아현시장 입구에서 새벽 조깅에 나섰던 金洪燦씨(62·소개업·마포구 염리동14의311)가 조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金씨는 이날 새벽5시께 집에서 나와 염리동언덕에서 아현국교쪽으로 달리다 고혈압이 악화돼 졸도한것 같다.

새벽 조깅…쓰러져서 사망

배달원 미행, 음식값 낚아

金씨가족들은 평소에도 고혈압증세때문에 운동을 말려왔는데 金씨는 『내자신의 건강을 위한것』이라며 매일아침 조강을 강행했다고 한다.

▲가정집에 음식을 배달하는 종업원을 몰래 뒤따라가 배달원이 돌아간뒤 음식값을 받아 가로챈 20대청년이 음식점 종업원들에게 붙잡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12일 金景植씨(20·무직·경기안양시안양동461의8)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10일 낮12시반께 서울강남구압구정동 현대아파트87동 앞에서 아파트상가안 H냉면집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가는것을 보고 이를 미행, 배달원이 87동 朴회자씨(36·여)집에 냉면 5그릇을 배달하고 돌아가자 20분후 朴씨집에 찾아가 『음식값을 받으러왔다』고 속이고 7천5백원을 받아 갔다는 것.

金씨는 같은 숫법으로 1시간사이에 네집에서 2만5천원을 받아 가로챈후 11일낮1시께도 현대아파트10동902호에서 같은 숫법으로 냉면값 4천5백원을받아 가로채려다 전날의 사건으로 범인을 찾아나선 음식점종업원들에게 붙잡혔다.

金씨는 잡혀와서 하는 말이 『용돈이 궁해서 꼭 한번만 하려했는데 잘 되어서 자꾸 하게 됐다』며 후회스런 표정.

<그림·權大雄>

■2시간동안 자살소동

▲지난 8일상오 서울성동구성수동3가3동281 온성여인숙(주인 金孝順·62) 2층6호실에 투숙중이던 李모군(18·전북정읍군이평면)이 출처미상의 폭발물 2개를 가슴에 품고 2시간동안 자살소동을 벌였다.

李군은 7일밤 8시께 투숙, 하룻밤을 지낸후 8일상오11시15분께 옷속에 손가락만한 크기의 폭발물을 품고 이중 1개를 터뜨렸는데 이 폭음소리를 듣고 놀라 뛰어나온 주인 金여인의 신고로 경찰관 50여명이 출동, 李군과 대치하다가 낮1시20분께 동부경찰서 張錫基형사(26)등 2명의 경찰관이 덮쳐 검거했다.

李군은 지난3일 상경, 일자리를 구하려다 실패하자 죽기로 결심, 수면제를 사서 먹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폭발물을 사용, 자살하려 했다는것.

▲여중에 다니는 딸의 수업료를 못대준 40대 아버지가 비관, 음독자살했다.

지난8일 밤11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신진리443 陰容煥씨(41·노동)집 단칸방에서 陰씨가 극약을 먹고 신음중인 것을 부인 陳鳳順여인(38)이 발견, 홍성도립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숨졌다.

부인 陳씨에 따르면 남편 陰씨는 가정형편이 궁색해 큰딸 貞愛양(15·광천여중2년)의 지난9~11월분 수업료 4만5천60원을 기한내에 내지 못하자 이를 비관해 오다 이날 가족들이 잠을 비운사이 음독자살했다는것.

▲신장이식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구할 수 없는 딸에게 홀어머니가 자신의 신장을 주겠다고 나섰으나 수술비를 마련치 못해 애태우고 있다.

서울 청계천변의 작은 공장에서 미싱공으로 일하며 가계를 꾸려오던 高楊子양(20·전북진안군상전면월포리1190)은 지난달15일 몸이 아파 귀향, 全州예수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만성신부전증으로 판명돼 신장이식수술을 받지않으면 앞으로 한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

딸 수업료 못대 父親자살

수술비없어 애타는 母情

다섯식구의 가장역할을 해온 高양이 사경을 헤매게 되자 홀어머니가 자신의 신장을 딸에게 주겠다고 나섰으나 엄청난 수술비를 마련할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11일 금성통신주식회사 직원 李景帝씨(23)를 절도및·유가증권위조,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성통신 개경본부 자금과직원으로 근무해온 李씨는 지난 80년 7월부터 이 회사명의의 백지약속어음 1백72장을 훔쳐내 회사대표등 어음발행관계자 도장을 위조, 1장에 3천만원~5천만원의 액면가를 기입, 서울중구을지로2가 동지의 사채시장에서 액면가의 2~3%를 할인해 파는 방법으로 모두 9억8천여만원어치를 유통시켜온 혐의이다.

李씨는 훔친 백지어음을 위조, 유통시킨후 결제기일안에 훔친 다른 어음을 할인해 부도를 막는 숫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1백72장을 훔쳐 위조, 유통시켜오다 지난 9월초 1억원짜리 부도어음을 기일내에 결제하지못해 어음이 회사로 되돌아오는 바람에 그

순복음 토론토교회
창립 제6주년 기념
안수집사 및 권사 취임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순복음 토론토교회에서는 창립 제6주년을 맞이 하여, 다음과 같이 안수집사및 권사 취임식을 통해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로 불러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려고 하오니 함께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를 원합니다.

안수집사 : 윤종수 집사, 박두만 집사
권사취임 : 유선은 집사, 최성남 집사, 임선비 집사
장 소 : 순복음토론토교회 ☎ : 881-7162, 247-9577
1 King St. Weston (Weston & Lawrence)
일 시 : 1982년 10월31일(주일) 오후5시 — 예식
오후6시30분 — 축하연

순복음 토론토교회 당회장이필주 목사 및 교우일동

「신문에 안난 現場」

품앗이로 모은 1백20여만원으로 유아원 설립한 처녀

"나는 결백하다" 유서 쓰고 자살 해버린 경비원…

잔의 범행이 들통났다.

▲20대처녀가 농촌에서 김매기 등으로 모은 돈 1백20여만원으로 농촌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원을 설립, 무료로 운영하고있어 화제.

주인공은 강원도원주시무실동 속칭 마장동부락의 마장새마을유아원 원장 李喜馥양(26). 이 마을이 고향인 李양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원주聖花여중을 졸업한후 상급학교 진학은 못하자 인간상록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기금을 마련키위해 지난 10여년간 이웃의 김매기등을 해주며 푼푼이 모은 돈가운데 1백20여만원을 우선 유아교육사업에 쓰기로했다.

李양은 지난해4월 마을회관을 빌어 이곳에 의자, 책상, 그네, 미끄럼틀, 장난감등 유아들을 위한 기본 교육시설을 대강 갖춰놓고 인근마을의 4~6세된 영세민 자녀26명을 수용, 무료로 율동과 노래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5개마을 1백60여가구 9백80여 주민들은 농번기를맞아 일손이 달릴때마다 李양을 찾아와 취학전의 어린이를 돌봐줄것을 간청.

그러나 李양은 시설이 협소해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수가없어 안타까와하기도했다.

李양의 이같은 어려움을 전해들은 原州市는 유아원 건물 신축예산으로 4백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 마을 元容浩씨(34)는 유아원신축부지 50평을 회사했고 原州市사회정화위원회에서는 오르간1대를 기증하기도했다.

■피의자가 男兒순산

▲절도혐의로 春川경찰서에 수감중이던 李모여인(22·춘천시후평동)이 10일밤 8시께 춘천의료원 분만실에서 체중3·5kg의 건강한 사내아이를 순산, 春川경찰서직원들은 이날밤9시께 병원으로 찾아가 아기옷과 미역을 마련해줬다.

李여인은 지난1년여 동안 동거해오던 金모씨(30·무직)가 3개월전 집을 나간후 돌아오지않자 임신중절할 비용을 마련키 위해 지난3일밤 8시께 이웃의 金모씨(28)집에 침입, 녹음기등 10여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협의로 구속됐었다.

경찰은 李여인이 초범인데다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어 선처해 줄수있는 방안을 [illegible].

▲11일 상오 8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5 동아전직1층 변전실에서 이공장 경비원 崔承培씨(35)가 2m 높이의 벽기둥에 끈으로 목을 매 숨진것을 이 회사 申尙祜차장(4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경비원 司空씨(54)에 따르면 이날 상오7시35분께 변소에 간다며 경비실을 나간뒤 숨진 시체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바지주머니에서 「나는 결백하다」 「쓰레기차 판계 전공원및 경비원합작」이라는 내용의 혈서로 쓰여진 유서를 발견, 崔씨가 모함으로 궁지에 몰리자 자살한것으로 보고 자살동기를 조사하고있다.

崔씨는 월남전에 참전중 부상을 입은 2급원호대상자로 지난6월 이 회사에 취직, 월14만원씩 받고 경비원으로 일해왔었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11일 柳모군(16·K중3년) 宋香鎭씨(26·한양대학병원 의료기사)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격이 커 20대로 보이는 柳군등은 지난8일밤9시께 서울종로구 창신동460 디스코클럽 벤허에 들어가 위조한 모방송국 기자신분증을 내보인후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사건記者 수첩

某방송국 記者신분증 위조 金品 갈취

「돈이없어 못갚겠다」…칼로 찔러 重傷

출입시키고 있다』고 위협, 클럽상무 金富政씨(38)로부터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5만원을 받는등 종로구창신동일대의 주점 라스베가스, 로터리동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47만5천원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것.

柳군은 지난5일께 길에서 주운 모방송국직원의 사원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택시합승에서 만난 宋씨와 함께 주점들을 상대로 공갈행각을 벌여왔다는 것.

▲지난6일상오11시께 서울은평구대조동 국립보건원앞 네거리에서 청원택시소속 서울1아4415호 포니택시(운전사 徐世昌·33)가 교통단속중이던 서울서부경찰서소속 전경 姜友敎일경을 70m가량이나 차에 매달아 끌고가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운전사 徐씨는 이날 구기동에서 역촌동 방향으로 차를 몰고가다 보건원앞 네거리에 이르렀을때 姜일경이 차선위반임을 지적, 교통단속을 하려하자 이에불응, 앞문에 매달린 姜일경을 그대로 끌고갔다는것.

경찰은 徐씨를 공무집행방해, 업무상과실치상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술값시비 숨지게해

▲서울서대문경찰서는 7일 술값시비끝에 손님을 때려 숨지게한 술집종업원 양명섭씨(29·서대문구홍제3동266)와 양씨의 친구 尹禮俊씨(33·무직·주거부정)등 2명을 폭행치사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일밤9시반께 서울서대문구 홍제3동266 맥주집 왕자클럽(주인 김화연·47)에서 술을 마시던 모신문사 판매국사원 金창원씨(29·동작구사당동산24)가 술값때문에 시비를 걸자 金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한 협의다.

▲서울관악경찰서는 11일 金福童씨(21·관악구봉천동525)를 강도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8일밤10시30분께 봉천동860 尹承玉씨(42·상업)집에 종이로 복면을 하고 침입, 식도로 尹씨를 위협하고 장롱속에 든 일제카메라 1대(싯가29만원)를 빼앗아 달아난 협의다.

뒷모습과 목소리가 동네 우범자인 金씨와 비슷하다는 尹씨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金씨를 추궁하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는것.

▲서울서부경찰서는 12일 빚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상대방을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金永愛씨(여·32·서울시은평구불광1동272의21)를 살인미수협의로 구속.

金씨는 지난 10일 하오5시 10분께 은평구 불광동 331의66 安영숙여인(35)집 안방에서 安여인에게 빌려준 돈 1천만원중 일부라도 갚으라고 요구하다 安여인이 『돈이 없어 못갚겠다』고 버티자 미리 갖고있던 길이 17cm의 과도로 安여인의 옆구리를 찔러·중상을 입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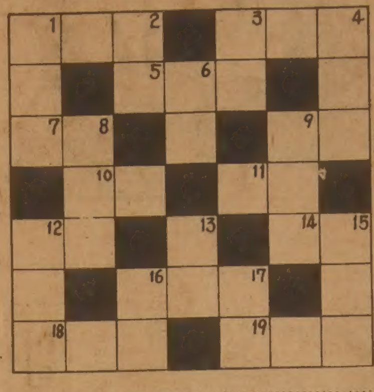
현재 모 버스회사 안내원교양주임으로 근무 하고 있는 金씨는 『安여인에게 빌려준 돈 1천만원은 15년동안 안내원 생활을 해 번 돈』이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살인미수죄까지 지게 됐으니 메사 행동 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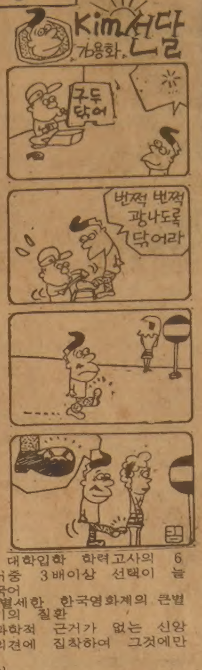
<기록·姜升遠기자>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28회 퀴즈>





<힌 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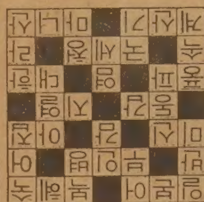
■가로

1. 83학년도 대학입학 학력고사의 6개 외국어중 3배이상 선택이 늘어난 외국어
3. 10월 5일 별세한 한국영화계의 큰별
5. 부인생식기의 질환
7. 종교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신앙
9. 자기의 의견에 집착하여 그것에만 쏠림
10. 같은 나이
11. 지구 내부에 있는 고유한 열
12.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
14. 지독히 춥다는 1년24절후중 마지막 절후
16. 內國稅의 부과징수를 총관장하는 곳
18. 주관보다 이것을…
19. 전국체전 聖火를 點火하는 곳

■세로

1. 정부방출미가 아니고 시중에서 거래되는 쌀
2. 바다가 생업터
3. 요긴한 곳에 군사를 숨겨둠
4. 두개이상의 낱말이 합하여 뜻을 이루는것을 모은 책
6. 집을 팔고 등기이전을 해줄땐 꼭 이 도장이 있어야
8. 제7회 아시아청소년농구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공로패를 받은 왕년의 농구스타
9. 열대와 온대의 중간
12. 바람이 부는 속도를 잼
13. 세상을 싫어함
15. 三帶식물이 울창한 표고1950m의 산
16. 乾은 원편위로、坤은 오른편 아래、坎을 오른편 위、離를 원편 아래로 함
17. 시인 유치환씨의 호

<정답은 12면에>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한인 양로원 기금마련

제1회 청소년 자선 예술제

폭소의 Ms. 코리아 선발대회,

5인조보 컬그룹

피아노 · 보련

바이올린 송영철 · 서정

MC이성희, 대학가의 귀염둥이 이인배

권도웅과 그의 그룹

플룻 · 주정희

찬조출연: 한인교향악단 실내악, 등불중창단 김용순무용학교,

티 켙: 성인 $5, 노인 $3

판매처: 각한인업소

일시 : 1982년 11월 6일(토) 오후7시

장소 : 570 SHAW ST. (SOUTH OF BLOOR) CENTRAL HIGH SCHOOL OF COMMERcE

주최 : 토론토한인회

후원단체 총영사관, 체육회, 실협, 코리아타운번영회, 한국일보,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대학생회

마피아 巨物들 노려 피의 잔치

富누리는 伊 마피아의 正体

마약·유괴·살인 일삼는 犯罪 집단

마약·유괴·살인으로 이탈리아 마피아는 땅에 뿌리를 내렸고 그것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부를 각종사업에 재투자하는 지하 범죄 콘체른이다。 그러한 마피아는 죄와 통하며 또한 마피아를 추적하는 자는 마피아의 제물이 되게 마련이다。 다음 글은 근착 스피겔誌에 「마피아—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피의 잔치」란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殺害당한 巨物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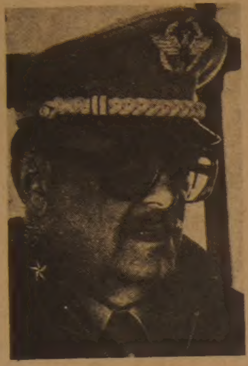
일몰직후의 어두움속에서 하루를 가름하던 시칠리아의 팔레르모市는 수호신 산타 로살리아에 경배하는 축제를 갖고 있었다。 수백년간의 피의 역사로부터 도시를 해방한 이 성자를 생각하며 수도승들은 오랜 기도문을 외고 있었다。

황혼속에서 전시가지를 감시하고 있는 TV 카메라에 시칠리아 주지사가 탄 차를 향해 돌진하는 두대의 차량이 잡혔다。 TV를 모니터하고 있던 경관이 비상벨을 채 누르기도 전에 제1탄이 발사되었다。 주지사 달라·치에사(62)장군은 손에 권총을 빼든채 머리를 관통당했다。 뒤이어 그가 맞아 들인지 두달밖에 안되는 그의 부인 에마누엘라(32)에 소련제 아카보 소총이 불을 뿜었다。

범인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도시를 구원한 전설적인 영웅 산타 로살리아 조차 손대지 못한 시칠리아의 불경스런 천재(天災)、 마피아였다。

피살된 시칠리아 주지사 카를로·알베르토·달라·치에사 장군은 붉은 여단을 궤멸시키는데 공헌한 탁월한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시칠리아에 부임한 인물。

그가 5월초 팔레르모에 도착한후 한발 한발 내디딜때마다 그는 마피아의 음산한 그림자에 몸을 떨어야했다。



◇마피아 사냥꾼 치에사장군。

8월 중순 로마의 일간신문 라 레프블리카誌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에서 치에사는 체념한듯이 인정했었다。『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거룻배

州知事·검찰총장등 방해자 모조리 살해

위에 서 있는 기분이다。 폭풍우가 불어 치기라도 한다면 바로 침몰해 버릴것같다。』

그 폭풍우는 오래 참지 않았다。 9월3일 금요일 초저녁 무전기로 암호를 주고 받으면서 살인 특공대 20명이 치에사의 모든 귀가길을 봉쇄하고 있었다。 머리에 총을 맞은 치에사가 그의 부인 위에 거꾸러진 그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고 다음날 아침 이탈리아 신문의 머리기사는 격분했다。

『그는 공포속에서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다』(로마의 레프불리카)、『마피아가 저지른 역사상 가장 잔악한 살인』·『선전포고와 다름없는 만행』(지오날레 누오보)、『상류사회가 최소한 자기부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시대』·『알로·모로 전수상의 납치·피살이후 최악의 살인』(스탐프)등 그야말로 로마정가가 태풍에 휘싸였다。

◇차에 탄채 피살된 치에사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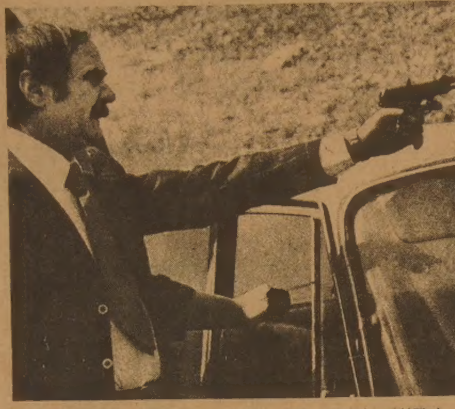
4일후 반조직폭력법(反組織暴力法)이 11시간의 논스톱 회의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범죄조직에 관련만되어도 최고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불법조직의 멤버임이 밝혀지면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에 이 법을 제안했던 피오라 토레(전 시칠리아 한 군의 장)가 지난2월 스파돌리니 수상에게 공개장을 보냈다。 마피아를 정치적 문제로 인식할 것과 이에 따른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이 공개서한이 신문에 인쇄되자마자 그는 이미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지난 4월30일 그는 팔레르모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에 빠져 피살되었다。

팔레르모의 기습특공대 대장 보리스·지울리아노는 79년 7월21일 한 바에서 술을 마시던중 마피아의 흉탄에 쓰러졌다。

그는 피살된 마피아 크리스티나의 주머니에서 3개의 수표를 발견한후 거대하고 복잡한 마약밀매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 수표는 시칠리아 코넥션에서 미국으로 직송되는 마약밀매의 족적을 나타내주는 최초의 증거였다。



◇주 치안국장 지울리아노。 바에서 술을 마시다 피살됐다。

그로부터 두달후 체사레·테라노바가 살해되었다。 유명한 판사인 그는 지난 79년 9월25일 팔레르모의 마피아 조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로마에서 팔레르모로 오던중 당한 것이다。

그의 팔레르모 도착은 마피아의 검은 돈이 재투자되는 과정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했다。 테라노바는 그의 철갑승용차 안에서 중무장한 경호원과 함께 피살되었다。

80년8월6일 시칠리아주의 검찰총장인 가에타노·코스타가 그의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주에 살해되었다。 피살자는 팔레르모의 마피아기업의 계정제한조치를 합법화하기위해 노력하던중 피살된 것이다。

■마피아의 정체

마약·유괴·살인—위 세가지로 이탈리아 마피아는 땅에 뿌리를 내렸고 그로부터 얻는 막대한 부를 건설과 유흥업에 재투자하는 거대한 지하 콘체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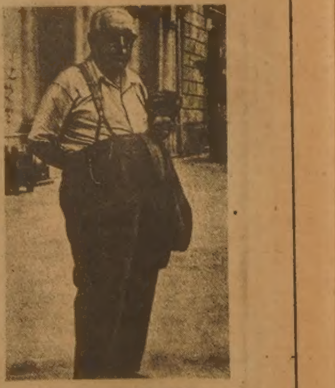
그러한 마의 탑은 곧 피와 통한다。 마피아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자는 누구든지 채소장수에서 변호사、 경찰、 건축가、 정치가에 이르기 까지 모두 제거된다。

◇마피아 구속에 성공했던 뭇솔리니。

마피아의 주요 소득원인 마약정제와 밀매는 72년 프렌·치·코넥션이 붕괴되고 뉴욕과 마르세유간의 마약루트가 뉴욕·팔레르모로 교체된 이후 성업을 누리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 암시장에서 팔거래되는 약60톤의 3분의1이 시칠리아로부터 세계시장으로 공급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1백50만 마약중독자가 이들의 고객이다。

한 판사의 추정에 따르면 이러한 시칠리아 코넥션의 성장에 힘입어 마약 판매액은 77년이래 5배나 증가되었다。



◇시칠리아 마피아 비치니。 그는 전후 시칠리아 서부를 합법적으로 통치했다。

所得源 마약密賣… 81년 2百30兆원 수입

세계마약去來量 30%공급…얻은富 재투자

이탈리아의 코카인 중독자수는 7백%가량 증가했다。 헤로인 과용으로 숨진 이탈리아인의 70%가 18~25세사이의 청년들이라는 사실은 더우기 충격적이다。

이 살인업에서의 소득은 신속히 재투자된다。 마피아는 호텔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휴가촌을 건설하며 슈퍼마킷과 교량건설에 투자한다。

이탈리아의 한 경제잡지에 따르면 시칠리아 마피아의 선두주자인 말라·인두스트리아와 나폴리의 카모라등의 1981년 소득은 7천5백억마르크(한화약2백30조원)를 기록、 이탈리아 GNP의 8%를 점하고 있다。 말라의 전소득의 반은 마약밀매에서 얻어졌고 밀수와 도박에서 번 돈도 상당하다。

또한가지 웃지못할 사실은 이 가공할 범죄조직인 마피아가 이탈리아 최대의 구직창구역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마피아의 검은 돈이 투자되는 최대의 대상은 건축업이다。 시칠리아의 1백50만 근로자중 21만8천명 가량이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시칠리아 건축업의 80%가 마피아에 의해 장악되고있다。 16만5천에서 21만8천명의 근로자가 마피아의 사업에서 밥을 먹고 있는 셈이다。

■마피아의 기원

마피아는 중세 노르만 정복자들의 가렴주구에서 시칠리아의 촌락들을 구출하기위해 결성된 보호조합으로 출발했었다。

언어학자들은 아랍어「마와」를 마피아의 어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피아란 말은 처음엔「아름다운」「화려한」「꽃의」「피난처」등으로 사용되었다 한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지배하던 프랑스 부르봉왕조의 통치로부터 탈출한 피난민이 찾는 채석장을 의미하기도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마피아는 도탄에 빠진 피지배층의 수호신으로 존경받던 조직이었던것이다。

수백년간 시칠리아의 주인은 노르만、독일의 호헨조른왕가、부르봉 왕조였다。 1820년 1840년、1866년 마피아는 농민반란을 영도했고 이탈리아 해방의 영웅인 가리발디부대의 선봉에 섰다。

그후 마피아는 대지주가 되어 농민들을 혹사하고 비밀맹약으로 범죄를 은폐하기시작했다。 한때 피난민과 독립투사의 따뜻한 품이었던 마피아가 범죄테러의 성채로 변신했다。 그 잔혹했던 외국인 대신 마피아가 섬의 주인이 되었다。

마피아의 꼭두각시들이 선거를 통해 주의회에 진출했다。 정치·경제 모두가 마피아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독재자 뭇솔리니는 마피아타도의 전무후무한 성공자였다。

마피아타도 앞장선 州知事…아들이 살해음모 가담 경악

敎人들 11월 敎皇 시칠리아 訪問때 마피아破門 기다려

이 독재자는 케사르·모리를 시칠리아지사에 임명、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교활한 모리의 술책에 숱한 마피아가 살해되고 해외로 탈출했다。

◇미사를 드리고 있는 마피아 희생자들의 아내들。

국내에 생존한 자는 파시스트당에 입당한 마피아뿐이었다。

종전후 시칠리아의 동부해안에 美해병대와 함께 상륙한 사람들은 바로 미국에 살고 있던 시칠리아인들이었다。 섬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미군은 시칠리아출신의 병사를 전군의 15%가량 징집했던 것이다。 이들중에 뭇솔리니에 의해 구축되었던 마피아가 끼지 말란법이 있겠는가?

◇대부(代父)로 분한 말론·브란도。 그런 권선징악적 대부의 시대는 갔다。

귀향한 미·시칠리아 점령자들과 함께 새로운 마피아가 부활했다。 그들이 뭇솔리니치하에서 무장해제 되었던 가족들을 새로이 고위직에 임명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미군은 시칠리아 분리주의자들과의 화해를 위해 마피아대부(代父)인 돈·카를로·비치니를 끌어들였다。

미군과 시칠리아 주민사이에서 충성스럽게 교량역할을 한 덕으로 비치니는 빌라바市의 시장에 임명되었다。 미군들은 그를 마피아 장군이라 호칭했다。

그 늙고 교활한 구렁이는 드디어 대마피아 왕국을 건설할 호기를 포착했다。 미군들은 시칠리아의 전서부를 통치할 직책에 비치니를 앉혔다。

그의 어두운 과거는 표백되었다。 대로상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와 심지어 살인사건에 관련해서도 아무도 제보되지 않았다。

민주주의 투사들이 감옥에서 여위어 갔다。 마침내 시칠리아의 서부도시들은 마피아를 시장으로 옹립하게 되었다。 세라리노·디메리는 그들중의 하나로 향후 5년간 벌어진 테러의 주역이었다。

마피아 시장들은 또한 사법을 양성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은 더욱 큰 구역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 주정부의 요인이 되었다。

치밀한 조직의 마피아족이 자신의 옛 친구를 망각했겠는가? 주내에 또 하나의 주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주정부 사업의 이익을 독점했고 기밀을 복사했다。 13년동안 마피아 타도 정책을 수행하던 반마피아위원회에 침투하여 그들에 위협이 되는 정책이 창안되는 것을 방해했다。

마피아의 보스들은 땅을 사고 공장을 세웠으며 무역업에 손을 댔다。 1959년~63년 교육위원회가 발주한 4천2백5건의 대소 공사중 3천4백건이 마피아의 꼭두각시 손에 돌아갔다。 마피아는 당시 팔레르모와 바살로의 전설왕이었다。

마피아와 정치계 인사와의 관계는 이런 역사적 배경속에서 발전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업과 혼인등으로 심화되었다。

최근까지도 기민당 정부내의 많은 각료들이 마피아와 직접 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루머는 낭설로 흘려 버릴수 없는 사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치에사 장군이 강력하게 마피아 타도를 부르짖었을 때 이들 요인들이 위협을 느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부친의 살인을 위한 음모는 시칠리아 정가에서 꾸며진 것이라고 폭로하여 이탈리아 전국이 경악했던 것이다。

오늘날엔 유례없이 시칠리아의 교회가 마피아 타도를 외치고 있다。『마피아는 하나의 사회악이다』 교회는 과거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마피아를 비난한 경우가 없었다。

마피아를 아는 사람들은 11월21일에 있을 교황의 시칠리아방문이 독실한 천주교신자인 마피아에 대한 질책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는 교황이 마피아를 파문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마피아이다。

한국일보의 광고효과를 말해주는 한국 안내광고란

구독신청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달을보고 느끼는차이>

빵이다…… 배고픈 사람。
금화다…… 실업자
내님 얼굴이다……사랑하는 사람
있으나 마나다…… 맹인。

윤석빈(한국나서회·서울 관악구 신림2동407 수출포장)

김선형(土月文友會편집장·성우점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사…사막의 얘기도
우…우리 건설역군앞에 고개를 숙이네
디…디딜곳이 기초가 되듯
아…아픔과 고난속에
라…라일락 향기를 그리워하면서
비…비 한방울 없는 삭막한 사막에
아…아! 그립다 그리워 내 나라 금수강산。

김대인 (사우디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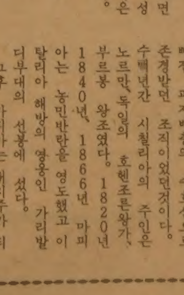
<퀴 즈>

한 여성회 모임에서 여흥으로 조용필과 그의 히트곡「고추잠자리」「미워미워」를 가장 짧게 연결시켜 보자는 문제가 나왔다。 최우수작은? —용필이 고추 미워—

한송이(土月文友會)

<어느 게으른 산악인>

정상이여! 내려와 나를 반기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복지사회에서 복부인이라 일컬어지는 우리가 푸대접받는 이유는。

—복부인 일동—

통대지기

<말세로다>

아무리 모델이라고는 하나 명색이 처녀가 피임약 광고를 하면서 너무너무 간편하다며 뻔뻔스럽게 웃는 꼴이니…。

때때(한국나서회)

<밤나무숲에서>

밤송이가 내 새끼냐?
내 새끼가 밤송이냐?

—고슴도치부부—

피카소환소

<명의를 찾습니다>

열수리를 수습해 줄…

—中東열을 앓고 있는 地球—

멍블(한국나서회)

<콩심은 데 콩난다>

김일성과 김정일

노가리(서울도봉구미아5동446의32 6통1반 이영한씨댁)

<여자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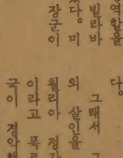
뒤늦게 시집간 노처녀
결혼하더니 노처녀 흉보더라。

피카소 환소(서울성동구화양동167의1 민속화실)

<다실에서>

『설탕은 없소?』
『저가 설탕인데요。』

尹正子



한국일보 533·2361

詩 <無風지대>

태양이 화를 내니
하늘도 침묵이라
적도의 無風지대
꽃잎마저 졸고
염천에 절인 몸은
언제나 나그네

구름 한점 다가오니
오아시스 에 어딘가
鄕愁에 젖은 마음
그 그늘에 달래는데
나그네 맘 몰라주는
구름마저 가는구나

김무위 (Dae Lim Ind. of Indonesia)

<시청료 아깝다>

낡은 얼기여보, 오히려 울리는 코미디, 그 얼굴、그 소재、그 꼬락서니 연속극、아나운서 목소리만 박진감있는 스포츠、사람 머리수만 풍성한 쇼、나붙이 쇼、옛날에 한고 또 하는 영화。

—추석연휴때—

별들(한국나서회)

<PR란>

·피할것은 피하고 알릴것은 알리는 것。

허형배(서울마포구노고산동17의42 5통4반)

連載 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肉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96

『정말 갈래?』

내 목소리가 떨고 있었다.

『……』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난…』

내 가슴 끝에 매달린 흐느낌의 소리였는지 모른다.

『우린 헤어지는게 아냐. 만나기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는 거잖아.』

결국 그 얘기를 하기 위해 다혜는 여행계획을 세운것 같았다. 다혜가 겪은 고통의 폭이 어떠했는지도 알것 같았다. 다혜 아버지가 바라는 그런 사회적 평가를 얻어내기는 이미 글렀다고 생각했다. 고시공부를 시작할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의과대학에 입학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다혜 아버지가 깜짝 놀랄만큼 재벌회사에 취직하여 내 실력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싶진 않았다.

지난줄거리

대낮의 둑 위에서 길고 뜨거운 입맞춤을 하고 내려온 두사람은 연포해수욕장으로 달렸다. 다혜의 태도가 심상치 않아 총찬은 캐물었다. 다혜는 선본 얘기며 집안 어른들이 총찬의 보잘것 없는 사회생활을 들어 다른곳으로 시집보내려고 다달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총찬은 울분을 터뜨리지만 쫓어나갈게 없었다. 다혜는 외국유학가겠다고….

지금이라도 김갑산 영감을 찾아가면 자리 하나는 말아올수 있었다.

『정말 가야겠니?』

나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다.

『가야돼. 우리를 위해서야.』

『내 생각엔 여기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애. 아버지를 만나겠어. 그래서 내가 어떤 놈이란 걸 보여주겠어.』

『그건 어리석은 짓야. 얘길했는데도 자꾸 그래. 될 일 같으면 내가 왜 말리겠어?』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무슨 짓일들 못하겠니. 부딪쳐보는 거야.』

『글쎄, 찬이 맘은 알아. 그러나 찬이가 우리 아버지 기준으로 보면 철딱서니 없는 애숭이일 뿐야. 아니, 내가 보는 찬이는 훌륭한 청년일 수 있지만 내 친구가 보는 찬이는 아직도 어린애일 수 있어.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찬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청년야. 내 눈엔 찬이만한 남자가 없지만 말야. 그걸 왜 모르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 주먹 쓰는 사람들은 찬이를 부러워하고 찬이를 존경할지 모르지. 그러나 사회는 그렇지 않아. 사회적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찬이는 그냥 실업자야. 더구나 우리 식구들 눈엔 더 형편없는 사내야. 능력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그걸 알겠어?』

다혜가 지껄이는 말이 이렇게 험한 적은 없었다.

『네 말은 맞아. 난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취직할 배짱도 없고. 그건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다혜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 그런데 네가 유학가는 길만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은 납득할 수 없어.』

햇살이 기울었지만 바다는 뭍보다 밝아 보였다. 가을 옷을 입었지만 찬바람은 몸을 스산하게 만들 정도였다. 갑자기 내려간 기온 탓도 있지만 아무도 없는 가을 바닷바람이 을씨년스러워서 더 그런 것 같았다. 바싹 마른 풀밭이었지만 습기가 기어올라왔다.

『여기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나도 장담할 수 없단 말야. 애원하는 부모, 딸자식 앞에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애원하는 부모한테 언제 뭐라고 할지 모른단 말야. 일년이고 이년이고 공부하면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 찬이도 공부하려 들 수 있잖아.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혜는 외국 유학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죄다 털어 놓았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난 유학같은 걸 갈 주제도 못되고 갈 형편도 못돼. 공부를 좀 못해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어머니의 외아들로 이 땅에 남아있고 싶어.』

단 한번도 외국 유학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해본 적도 없었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냐. 그냥 생각해 보란 얘기지.』

우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매듭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우리는 침묵하고 있었다. 다혜에게 다혜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곡선이 있었고 나는 나대로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다.

어떤 사회든 잠재력이나 개인의 노출되지 않은 능력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결혼문제일 땐 개인의 역량이나 배경을 심각하게 따져는것 같았다.

네가 스스로 옷을 벗지 않으면 결코 널 훔치진 않겠다

우리는 어두워지는 바닷가를 걸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유기하에게 정통으로 당할 때 느꼈던 참담한 패배와 또 다른 아픔이었다. 유기하란 중국무술의 고수에게 참담한 패배를 당할 땐 그래도 다시 대결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의지라도 있었다. 다혜 아버지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의식을 내 힘으로 바꾼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짐작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내일까?

무공스님 앞에 서면 내 의식속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느끼곤했다. 그러나 그 의식 속엔 내 존재가 엄연한 개체로 살아 있었다. 다혜네 식구들이 의식해주는 그런 보잘것 없는 사내는 아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차려온 밥상은 제법 정갈스러워 보였다.

『밥맛 뚝 떨어졌지?』

다혜가 새색시처럼 다소곳하게 앉아 싱싱한 생선을 내 앞으로 돌려 놓았다.

『밥맛 뿐 아니라 살맛도 없다.』

나는 투정부리듯 말했다.

『우선 우리 밥을 맛있게 먹은 뒤에 얘길 해봐.』

다혜가 괜히 너스레를 떨고 있는 눈치였다. 나를 위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정말 갈래.』

나는 첫술을 뜨면서 이렇게 물었다. 다혜가 어설프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모성애같은 애잔함을 보았다. 너무 이지적이어서 어떤 땐 여자내음도 나지 않는 구석을 보이는 여자였다.

『밥부터 먹고 따져. 내가 가는 것과 밥 먹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난 관계가 있어.』

『나 피곤해. 집에서도 피곤하고 나와서도 피곤하고….』

우리는 또 말없이 밥을 먹었다. 이렇게 오붓하게 밥을 같이 먹는것도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외국유학을 떠나서 반드시 내곁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었다. 가까이 있어도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멀리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다혜를 내곁에서 떠나보내시렵니까? 내겐 다혜와 결혼할 자격이 정말 없는 겁니까?

밤의 해변은 칙칙한 어둠으로 둘러싸여 우리들 마음처럼 가라앉고 있었다. 파도소리는 낮보다 더 요란스러웠다. 바닷가에 묶여있는 고기잡이배는 더 출렁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삭막한 폐가 근처를 배회하는 사람같았다.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같기도 했다.

『들어가자.』

내가 먼저 말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싫었다. 따뜻해지고 싶었다. 다혜의 가슴을 끌어안고 포근한 숨소리를 듣고 싶었다.

『날, 떠나게 내버려 둬.』

흐트러지는 목소리였다. 다혜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괴로운 마음을 느낄 수는 있었다.

바깥채는 안채와 떨어져 있어서 조용했다. 아마 여름 한철 민박하는 손님을 받기 위해 지어놓은 건물같았다. 안채는 초가삼간을 지붕만 개량한 것 같았고 바깥채는 시멘트벽돌로 지은 집이었다.

아랫목에 누운 다혜가 말없이 내 입술을 받았다.

『정말 떠날래?』

『이미 수속을 다 한 걸.』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않았지?』

『할 수가 없었어.』

『왜?』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어. 우리 아버지가 찬이를 그렇게 반대할 줄도 몰랐고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게 창피하기도 했어.』

『그런 얘기 때문에 상처 받을 줄 알았니?』

『응.』

『난 그 정도로 상처받지 않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나 다혜와 결혼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

『아냐, 찬인 괴로와했어. 아까 내가 얘길 시작할 때 난 알았어. 그렇게 상처 받을 줄 알았으면 떠날 때까지 말하지 않는 게 좋았을지 몰라.』

『난 아무렇지 않아.』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고 자꾸 우기기만 했다.

『나같이 보잘것 없는 여자 때문에 찬이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

다혜는 한번도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었다.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떳떳한 여자였다.

밤은 깊어가기만 했다. 수속을 거의 끝낸 다혜가 그냥 떠나버려도 내게 할 말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다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그냥 떠날 수 없었다는 거였다.

『정말 사랑하는 거지?』

내가 물었다. 무엇이든 확인해두고 싶었다.

『맹세할 수 있어.』

『그럼 네 손으로 옷을 벗어.』

나는 다혜를 안아 일으켰다.

『그렇게 확인이 필요해?』

다혜가 물었다.

『난 필요해. 그렇지 않고선 보낼 수가 없어.』

어쩌면 내 진심이었는지 모른다.

『정말?』

『그래.』

『……』

다혜는 말이 없었다. 그녀를 훔칠 수 있다면 그녀의 사랑을 의식치 않아도 될 것만 같았다. 오늘 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녀를 훔치고 싶었다. 훔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옷 입고 잘 거야?』

『……』

『난 약속은 지켜. 네가 스스로 옷을 벗지 않으면 결코 널 훔치진 않겠다. 무슨 얘긴지 알겠지.』

『그렇게 내가 갖고싶어?』

넌 욕망도 호기심도 없니, 네가 여자니, 사람이냐구?

침울한 목소리였다.

『그래. 난 네가 필요해.』

『그게 사랑의 확인이야?』

『널…필로 믿으라는 거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육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니? 사랑한다면 말야.』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나도 흐트러지고 싶어. 내 가슴 속에도 욕망은 꿈틀거린단 말야. 나도 찬이 거고 싶어.』

『그럼 됐잖아.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단 말야?』

『모르겠어.』

나는 다혜의 웃옷 단추에 손을 댔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쥐었다.

『약속 했잖아. 차라리 내가 벗겠어.』

『그래. 네가 벗어.』

다혜는 웃옷을 벗어 머리맡에 놓았다. 그녀는 잠깐 내 얼굴을 쳐다보고 피식 웃었다.

『정말 벗어야 돼?』

『넌 내거니까. 제발… 나좀 살려 두고 가라. 너마저 없으면…난 어쩌라는 거니? 어떻게 살아 있으라는 거니? 생각해봐. 내가 어찌 견디라는 건지. 제발….』

다혜 앞에서만은 어린애가 되고싶었다. 내가 지닌 자존심이고 내가 지닌 힘이고 그녀 앞에선 아무 위력도 지닐 게 없었다. 차라리 그런게 귀찮은 것이었다.

『모르겠어.』

다혜는 청바지를 벗었다. 나는 그런 다혜를 힘주어 안았다.

『넌 내거야. 정말 내거야.』

그녀는 누웠다. 나는 급하게 옷을 벗고 다혜 곁에 누웠다.

다혜는 반항하지 않았다. 입술과 숨소리가 똑같이 뜨거웠다. 내 몸도 모두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사랑한다. 정말….』

다혜는 뻣뻣한 채 내 입술을 당기고 있었다. 팽팽한 가슴을 감싸고 있는 브러지어를 벗겨 머리맡에 던졌다. 다혜의 가슴은 몹시 뛰고 있었다. 긴장한 탓인지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벗겨줄까?』

내가 물었다.

『싫어.』

『그럼 네가 벗어.』

『모르겠어. 정말 이래야 하는 건지.』

『왜 이래. 날 살게 해달란 말야.』

내 숨소리는 다혜의 뜨거워오르는 몸처럼 가빠졌다.

다혜는 몸을 수그려 옷을 벗었다. 나도 따라서 마지막 옷을 벗었다.

그녀는 이미 뜨거워져 있었다. 그녀를 더 뜨겁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처가 우리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 줄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녀는 차차 꿈틀거렸다. 차갑던 살갗들도 모두 뜨거워졌다.

『안돼, 제발…안되겠어.』

그녀는 몸을 사렸다. 나는 턱숨을 높이며 그녀의 움츠린 몸을 펴려고 했다. 완강해진 다혜의 육체가 금새 굳어버렸다.

『다혜야, 넌 내거야. 이러지마.』

『비켜. 안돼. 이러면 안돼.』

『왜 안돼?』

나는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늦출 수가 없었다.

『이러면 소리지르겠어.』

다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맘대로 해. 누가 뭐래도 넌 내 거야.』

『제발 이러지 마.』

『난 안돼.』

『이런다고 찬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

『확인해두지 않으면 안돼.』

아까 옷을 벗을 때의 체념이 아니었다. 그녀는 담쟁이처럼 몸을 꼰 채 내 몸짓을 거부했다.

『다혜야, 제발….』

『안돼.』

『죽이겠다!』

『차라리 죽여.』

『미치게 하지 마.』

『나도 마찬가지야.』

『넌 사람도 아니다.』

나는 다혜의 따귀를 갈겨버렸다. 다혜가 나뒹굴어졌다.

『차라리 실컷 때려. 이렇게 하면 난 찬이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될 거야. 우린 끝장나는 거야. 차라리 때리란 말야. 때리란 말야.』

다혜는 얻드려 흐느끼고 있었다. 둥그런 그녀의 등짝이 드러났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다혜 모습은 처음이었다.

나는 흐느끼는 그녀의 등을 쳐다보며 도대체 이 여자의 성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넌 욕망도 호기심도 없니? 네가 여자니? 네가 사람이냐구?』

나는 흐느끼는 그녀에게 이렇게 퍼부었다.

『나도 여자야. 다 주고 싶어. 그러나 지금은 안돼. 결혼할 때까지만 참아줘. 제발 부탁야.』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를 억지로 훔칠 수도 있었다. 힘을 줘어 눕히면 그만이란 생각이 들었다.

『찬인 힘으로 날 꺾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난 시체가 되어있을 거야.』

다부진 말이었다. 나는 한참동안 그녀의 등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그래, 졌다. 옷 입어라.』

나는 그녀의 물기 가득한 뺨에 입을 맞추고 나왔다. 어둠이 깔린 바닷가로 뛰어나갔다. 아직도 팽팽해 있는 내 아랫도리의 욕망을 끌 수가 없었다.

마구 내달렸다. 물 빠진 모래밭으로 정신없이 내달렸다. 해수욕장 끝까지 달렸다. 텐트촌으로 넘어가는 물길까지 달려가서야 나는 주저 앉았다.

욕망은 사그라들었다. 그렇게 견딜 수 없게 밀어닥치던 욕망도 흔적없이 사라져버렸다. 찬바람결에 마른 모래밭은 냉기로 가득했다. 나는 길게 누워 거친 숨을 토해내기만 했다.

한참만에 나는 다혜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힘없이 서 있는 그녀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다.

『미안해. 그러나 난 찬일 사랑해. 우리 사랑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알아. 나도 지킬께.』

『그럼 됐어. 들어가.』

『내일 서울로 올라가자. 난 밤이 무섭다. 오늘은 맹세를 해도 내일 밤은 나도 또 모른단 말야. 이놈의 욕망이란 놈은 맹세 가지고 안돼.』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밤이 무섭기는 마찬가지야. 찬이 말대로 할께.』

다혜는 무릎을 꿇고 내 입술을 더듬었다. 차가운 입술이었다.

『정말 우린 영원히 같이 있게 될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영원히 같이 있기 위해 우린 지금 상처를 받는 거야. 오히려 이게 우리를 묶어주는 힘이 될거야.』

우리는 낮에 하던 것처럼 길고 뜨거운 입맞춤을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였다. 차가운 밤바람과 철썩거리는 파도소리 뿐이었다.

우리는 밤을 이렇게 지새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호에 계속〉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LL PICK YOU UP AT 5.

우리가 왕왕 잘못하고있는 영어의 표현중의 하나가 pick up의 용법이다. 하루는 강의가 끝난후 마침 차가 말썽을 일으켜서 버스를 이용하려는 필자에게 「제가 댁까지 pick up해드리지요.」 이렇게 제안해 오신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어느곳까지 태워다 주는 것은 pick up이 아니라 drive나 take를 사용한다. 예컨대 「댁까지 모셔다 드리지요.」라고 하고싶은 경우에는 I'll take you home. 혹은 I'll drive you home. 이라고 하면 된다.

이때 pick up해주겠다는 말은 상대방을 제상의 장소에서 만나서 차를 태워주는것을 말한다.

또한 place란 장소를 말하나 일반적으로 회화체 에서는 집을 나타내고있다. I'll pick you up at your place at 7. (7시에 너희집으로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가겠다)See you tomorrow at my place. (내일 우리집에서 만나자) 이같이 사용된다.

A : How about having dinner with me tonight?
B : Sounds great! Do you have any special restaurant in mind?
A : Yes, I do. I know a place that has excellent food.
B : What time shall we make it?
A : I'll pick you up at your office at 5. How's that sound?
B : Fine. I'll see you then.

× ×

A : Would you like to see that new science fiction film?
B : I'd love to. When?
A : I was hoping you'd be free Friday night.
B : Friday's fine. Where shall I meet you?
A : Why don't I pick you up at your place at 7?
B : I'll be ready.
A : 오늘밤 저녁이나 함께 하시는게 어때요?
B : 듣던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생각나는 특별한 식당이라도 있으신가요?
A : 네, 그래요。 음식을 아주 잘하는 곳을 알고있읍니다。
B : 몇시로 할까요?
A : 제가 5시에 선생님 사무실로 모시러 가겠읍니다。 괜찮으신가요?
B : 좋아요。 그때 만나뵙죠。

× ×

A : 새로나온 공상과학영화를 보러 가시겠읍니까?
B : 기꺼이가겠읍니다。언제인가요?
A : 금요일밤에 시간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B : 금요일이면 괜찮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A : 7시에 제가 댁으로 모시러 가는게 어떨까요?
B : 준비하고 있겠읍니다。

How's that sound? : 어떻습니까?
science fiction film : 공상과학영화
work : 일하다。 명사로는 직장을 뜻함
terrific : 구어체로서 굉장한, 훌륭한의 뜻이다。 반대로 몹시 심한경우는 terrible 이라고 한다。 예) This food is terrible. (이 음식은 엉망이다。)
give(a person)a lift : (아무를) 차에 태우다。
gee : (속어) 아이고, 깜짝이야。 등의 표현。

I'M SORRY TO HEAR THAT.

「시험에 떨어졌읍니다.」 I failed the exam. 이라고 상대방이 얘기 했을때 만약 That's good. 이라고 대답한다면 그것 참 고소하다 의 뜻이니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리라。

「그것 참 안됐군요」 That's too bad. 혹은 I'm sorry to hear that. 이라고 해야된다。

희로애락의 경우에 대답은 맞추어서 해야 되는것이다。

만약에 기쁜일인 경우는 이와 반대로「참 잘됐읍니다」 That's good 혹은I'm glad to hear that. 이라고 하면 될것이다。

「몸살이났다는 말은」 I ache all over. 라고한다。 이때 ache는 통증을 의미하니 「여기가 아프다」 고얘기하고 싶을때는 It aches here. 하면 된다。

A : I hear you have a cold.
B : Well, I had the flu for a couple of weeks. but I'm fine now.
A : You're looking well. By the way, did you hear about John?
B : No. What about him?
A : He had a car accident and broke his arm.
B : I'm sorry to hear that.
A : 감기에 걸리셨다고 들었는데요。
B : 네, 2주동안 유행성 감기를 앓았읍니다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A : 안색이 좋으시군요。 그런데 잔에 대해서 들으셨나요?
B : 아니오, 그가 어떻습니까?
A : 자동차 사고가나서 팔이 부러졌대요。
B : 그것 참 안됐군요。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 (12불), 제3권(12불)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흡

사진

새 하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블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 두·이건학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경험 있는 재봉기술자 구함.
(단침및 쌍바늘 사용)
부분 일거리임.
신청: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s
637 Lakeshore Blvd. W. 3층
Gino에게 문의 바람.

주인이 여러 가게 운영으로 그로서리 가게 매니저를 급히 구합니다.
전화 : 466-7698 Mrs. 정

입주하셔서 애기 돌보아 주실분
5살 여자아이
전화 : 533-3545

가게 경험있고, 영어할수 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교통편한 다운타운지역. 주중 스테디 풀타임 JOB.
전화: 699-3953, 960-0376

맥스밀크에서 금·토·일 일할 헬퍼구함
○미시사가지역.
전화 : 278-4867.

그로서리스토아 메니저 구함
주매상: $5,000 ★스탁은 전부 인수받아야 함.
전화: 782-7254(낮12시~오후6시)

캐네디안회사에서 일할 여직원 구함
영어 잘 해야하고 타이프 60자이상 치는자.
전화: 677-4749(MR. 리) 미시사가지역

주말에 도넛숍에서 일하실분 구함.
전화 : 977-0303 다운타운 지역.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하루 7시간. 전화: 532-6143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피아노 레슨함.
몬트리얼에서 레슨함. 선생: STEPHEN CH'IN
주소: 4328 RUN SHERBROOKE, WESTMOUNT.
전화: 932-7000
All grades, Royal Conservatory, All Festivals, Competitions, or for Personal accomplishment

Grade 7부터 Grade 9까지의 수학·과학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가 개인지도 또는 그룹을 지도함.
전화 : 293-3149 Mr. Sam Lee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 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댄 스

개인·소구룹·단체·출장지도.
교사: 김유수 문의: 742-4208.
체계적인 교안으로 철저히 책임지도하며 주말지도도 가능함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illegible]-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매매

가족이 운영할 수 있는 버섯농장과 커다란집 매매함. 더이상 알고자 하시는분은 연락주세요. 영어 편지로 문의 바람.
FRANK MOLICA
R.R. #4 Bowmanville
Ontario. L1C 3K5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TUCK SHOP(시간 짧고 이윤좋은 가게) $15,000다운+모기지 개인사정으로 급매. 주매상: $2,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 275-9507 20 Mississauga Valley Blvd.

Space Rent
꽃·과일·버라이어티가게 적합.
도로 확장공사 완료.
대형공장및 Plaza가 신년초 Open하는 지역.
346 Weston Rd.(St. Clair 와 Rogers 중간)
자세한문의는: 763-3289, 365-1489(오후)

COIN LAUNDRY 급매코자 함.
(그린우드×코스본) 가격: $16,000
리스2년+옵션 전화 : 537-4910 Mrs.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좋은 가격
Ossington × Bloor.
전화 : 531-1023, 531-5005

빌딩과 잘 꾸며진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이층에 살림집이 있음. QUEEN STREET EAST.
아스킹 : $79,000+스탁 전 화 : 465-1005 MR. Kung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Lawrence & Allen Express)
Plaza 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759-8658(R). 781-6774(B)

Tuck Shop 급매
좋은조건으로 양도 하겠음. 직접내방 요망.
2233 Hurontario St. missi.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버라이어티 스토아(TILSONBURG)
주매상: $3,500 9am-6pm
일요일 문닫음. 렌트: $825(이층에 2베드룸아파트 포함).
권리금없이 $10,000만 다운요.
스탁: 약$35,000 나머지 10% 모기지
연락처: (519)842-5741 혹은 453-6088로 문의 하세요.

버라이어티스토아 급매(이윤좋은 가게)
주매상: $2,500. 렌트: $450. 리스: 4년반
아스킹: $12,000+스탁. 전화: 654-4709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좋은 조건의 가게 싸게 팝니다. 관심있으신 분 직접 내방요. 주매상: $4,000
430 York Blvd., Hamilton(해밀톤)

Flower Shop 매매함. 스카보로지역. 생긴지 5년반되고 작은 Plaza내. 영업시간은 조절됨. 리스 약4년. 렌트 월 $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438-2411(저녁 7시이후)

◉Milk Cooler(문 5개짜리), 깊이가 10Ft.
◉아이스크림 캐비넷과 Shelf 매매함.
전화: 881-0757 MR. 리

가 구 매 매
자개상 3개·자개3층장 2개·자개문갑 1개
전화: 536-1721(가게), 363-1410(집)

비데오아케이드가 딸린 가게 팝니다.
바데오머신 15대. 가게주매상: $4,500. 내방바람.
651 QUEENSTON RD. STONEYCREEK. ONT.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오샤와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3층 아파트빌딩 좋은 가격에 팝니다. 한달인캄 : $1,200
아스킹 : 11만8천불. 전화 : 293-3515 MIKE

5개월된 새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Plaza에 위치한 깨끗한 가게. 주위에 식당, 사무실이 많고 경쟁자 없음. $31,000+스탁. 전화: 294-8164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매상: $4,000 리스: 1년(650불)+5년
550 Sheppard Ave. W.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아파트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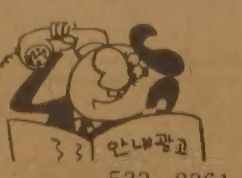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있음. 스카브로 지역
(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베출러 아파트 서부렛(Sublet) 합니다.
11월초 부터 입주 가능. 월: $168.-
전화 : 533-0668 (저녁 7시이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533-2361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충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 팍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자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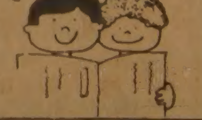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 : 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비데오 게임머신 버라이어티스토아.그로서리스토아 그리고 음식점. ◉24시간 써비스
전화: 636-0906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보십시요.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